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1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2월 4일(음력 1월 10일) 수요일(주간)



2005년 경주 남산 열암곡 발견 당시 불두와 광배가 크게 파손됐던 열암곡석불좌상(경북도유형문화재 제113호)이 1300여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당당하고 풍만한 몸체로 가부좌를 틀었다. 사진은 석불좌상의 발견 당시 모습(좌)과 복원 후 모습(우).

열암곡 석불좌상 제 모습 찾다!

국립경주문화재硏, 불두·광배 등 복원 완료

경주 남산 열암곡석불좌상(列岩谷石佛坐像, 경북도유형문화재 제113호)이 1300여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당당하고 풍만한 몸체로 가부좌를 틀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가 1월 29일 석불좌상의 정비를 마치고 현장보고회를 개최한 것.

열암곡석불좌상은 통일신라시대(8~9세기) 불상으로 2005년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발견 당시 불두(佛頭)가 계곡 아래에 떨어져 있고 광배(光背)는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있는 등 크게 파손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번 복원 · 정비는 연구소와 경주시(시장 백상승)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신라 불교문화의 보고 경주 남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구소는 2007년 4월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1년 6개월간의 작업 끝에 불상을 높이 4m에 광배와 대좌를 갖춘 당당한 모습으로 복원했다.

떨어져 나간 불두는 보존처리 후 불신에 접합하고, 10여 조각으로 깨진 광배는 구조보강 작업을 거쳐 완전하게 접합했다.

특히 광배는 연화문(連華文), 화불(化佛), 불꽃무늬 새김 등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아우르는 거신광(擧身光)의 면모를 갖췄다. 또 유실된 중대석(中臺石)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불상 형식에 따라 새로 만들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주헌 학예연구관은 "이번 열암곡석불좌상 정비는 신라인의 신앙지였던 경주 남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그 참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금주 신문 20면 발행

"생명주는 말은 재앙없다" 선지식을 찾아서 ▶10 효산 스님

"마음 밖 불성 따로없다"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6 덕산 스님

새 연재 월서 스님의 주련이야기 ▶6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현불만평 ▶19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시설 여전히 부족"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목조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숭례문 화재참사 1년이 지난 지금, 국내 목조 문화재의 화재예방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후 국민들의 안타까움 만큼이나 문화재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는 듯 했지만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월 19~23일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관리 지자체와 소유(관리)자에게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숭례문 화재 1주년을 맞아 문화재청과 '2008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기관'(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중요목조문화재재 산불예방에 대한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를 알리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문화재 소유(관리)자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문화재를 보호 · 보존하기 위해 △소방설비 및 화재예방 실태 △산불 예방실태 및 산불위험요인 △각종 전기설비 및 가스설비 안전 등의 항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나주 불회사, 양산 통도사, 강진 무위사 등은 일부 소방분야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분야별 지적사항은 △전기분야=전기누전차단기 보수 · 설치 및 노후 전선 교체 △가스분야=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 설치 △산불분야=산불방지를 위해 인접 산림 내 잡목 · 낙엽 제거 등이다.

홍두식 재난관리총괄담당(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은 "일부 문화재의 경우 소화기, 소화전, 가스 · 전기시설 등은 잘 관리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 보수 및 추가 설치 등 보완이 필요했다"며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문화재 소유(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문화재 소유(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참배객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홍보물 등을 설치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시설물 보완을 위해 기술 및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인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2면으로 계속

법구경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써만 정복되나니
영원한 진리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청서리 맑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다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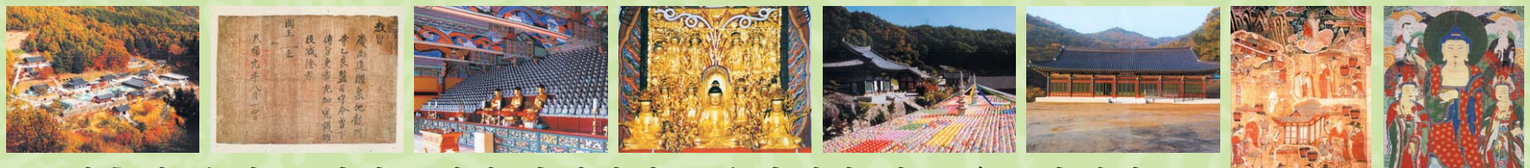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 용문사 천불전 /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 용문사 만등불사 / 성보박물관 / 팔상탱(보물 제1330호) /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명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죽비와 목탁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준비 안 된 불교영어교육

정확히 1년 전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내놓은 '영어 몰입 교육' 정책으로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을 달궜다. '어륀지(orange)'라는 유행어를 남기고 잠잠해졌지만 세계화 시대에 문화의 소통을 위해서 영어교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1월 28일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TV가 공동 제작한 '헬로우 달마 스쿨(Hello Dharma School)'이 불교TV를 통해 첫 방송됐다. '헬로우 달마 스쿨'은 어린이 대상의 불교 포교와 함께할 수 있는 영어교육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청과 해외에서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의 필요에 의해 제작됐다.

'헬로우 달마 스쿨'은 일선 사찰 어린이법회에서 1년간 영어교실을 열 수 있도록 구성됐다.

포교원은 방송 후 영어교실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찰에는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워크샵을 개최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지도자 충원부분에서 "교사는 확보됐다. 내용이 쉬워 일반 대학생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한국어로 말해도 어렵다는게 불교다. 게다가 불교 용어는 다의성과 함축성으로 불교 학자들의 경우도 오역과 그릇된 해석이 빈번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쉽게 풀이됐고 또 영어불교용어는 한자불교용어에 비해 훨씬 쉽다지만 이것은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쉬운 내용 속에도 불교교리를 오롯이 살려 알리기는 쉽지 않다는게 핵심이다.

특히 어린이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인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는 가운데 어린이 영어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교사로 대학생 1~2학년 수준의 회화 가능자 아르바이트를 투입하면 된다는 허술한 발상이 문제다.

아무리 영어몰입 교육이 유행이라지만 교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지도자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영어프로그램을 보급하려는 것은 성급한 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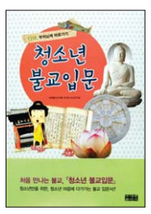
해외 포교를 위해서도 만들어진 이번 방송과 교재가 외국 어린이들의 수준에 적합한가도 의문이다. 한국어를 쓰는 어린이를 위한 불교영어교재와 프로그램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해외 어린이에게 적용된다면 이 교재의 사용 범위는 얼마나 될까? 안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불교영어교육을 위한 한국불교 용어통일과 지도자 양성부터 서두르는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 아닐까.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불교입문' 발간

1318세대를 위한 불교입문서가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은 지난해 <청소년 설법자료집>을 펴낸데 이어 한국불교의 새싹이자 희망인 청소년 불자를 위해 <청소년 불교입문>을 발간했다. 불교지도자들에게는 지침서로, 청소년들에게는 불교 길라잡이로 반듯한 불교 안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청소년 불교입문>은 불교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면서 현재 중·고등학생인 13~18세에 이르는 세대들이 불교를 교리, 가치, 생애, 불교문화, 수행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불교종합선물세트로 손색이 없다. 가연숙 기자



전통사찰음식 세계화로!

문광부 5억원 지원, 5년간 일제조사 실시

웰빙 열풍과 함께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때, 조계종이 전통사찰음식의 표준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는 최근 전통사찰음식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해 5년간 일제조사를 거쳐 전국의 전통사찰음식과 문화 원형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부는 전통사찰음식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1월 12일 문광부로부터 5억원을 배정받았다. 5년간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사찰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제조사는 전국을 서울·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라 등 5개 광역으로 나눠 1년 단위로 실시된다. 인터뷰와 조리과정 등을 과학적 채증과 함께 각 지역별 전통사찰음식의 역사성, 영양성과 건강 및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게 된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M&B는 일제조사 기간 중 사찰음식 페스티벌과 사찰음식 관련 서적을 발간하고, 외국인 대상의 사찰음식 관련 관광코스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전통사찰음식은 한국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표준화 사업을 통해 전통사찰음식 원형을 보전함은 물론 세계화에 나설 예정"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영배 스님 유죄 확정 동국대 어떻게?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 30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영배 스님에게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스님은 당시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에게 사설사암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었다.

영배 스님의 유죄 확정에 따라 동국대 후임 이사 선출을 두고 종단이 한차례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종단에서는 후임 이사 자리를 두고 계파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맞물려 의외로 쉽게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정아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관리 안전 지적사항 전달

1면에 이어서

문화재청 등은 1월 19~23일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중요 목조문화재 151건(점검대상 중 경복궁 근정전 등 20건은 1월 6~9일 점검)을 합동 안전점검하고 문화재관리 지자체와 소유(관리)자에게 총 182건의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합동안전점검 중 국보 문화재 점검 결과

	문화재명	분야별 지적사항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소방	비상경보설비 단선·보수 조치 필요 수신반 설치 장소 이설 필요
		가스	도색 및 일부 부식으로 교체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가스	가스배관 도색 필요,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부로 이설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가스	주방내 가스누설 경보기 비치
		산불	경외지역 잡목 등 제거 검토
		전기	각황전 분전반 전선피복 손상 우려(배관형 교체) 대웅전 기둥 외등인입구 합선 우려(배관형 교체)
국보 제56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	전기	하사당 내부전선 배관형 교체 하사당 주방 규격전선으로 교체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전기	대웅전 마루 전선 구멍 차단(쥐로부터 전선보호)
		가스	가스용기 고정 및 가스누설 경보기 등 설치 필요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소방	대웅전 주변 소각로 이설 필요, 소화기 점검표 부착
국보 제18호 제19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	소방	소화기 충압 필요, 수신기 경계구역 표시 필요
		가스	가스용기 고정장치 필요 및 경계표시 비치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	가스	가스배관과 전선과의 이격 필요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공정한 업무 종교 화합 계기 마련"

대오 스님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취임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대오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 왼쪽부터 안홍철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김한승 신부(대한성공회 사회선교국), 양신경 사관(구세군 대한사회본영 사회복지부).

"특정 교단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사업을 처리하며 의견 수렴해 복지활동을 통한 종교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1월 30일 LG트윈타워 노들원에서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 신임이사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대오 스님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각 종교계가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사협은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를 위해 1998년 창립됐다. 불교를 비롯해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종교간의 장벽으로 대중의 호소를 외면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회복지현안에 관한 정책제시와 대안마련,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 정부와 민간단체, 종교계간의 연대사업 등의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태종복지재단, 진각종복지재단,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평신도국 등 총 11개의 종교복지단체가 참여중이다.

한편 한종사협은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모금회법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동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가 '민간모금 현황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나은 기자

"월운 스님 해임, 교학승 의기 짓밟는 폭거"

2월 12일 조계사 극락전서 발기인대회 개최

동국대(총장 오영교)의 前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해임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된다.

(가칭)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 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월 12일 오후 2시 조계사 극락전에서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준비위는 발기인대회 동참 호소문에서 "월운 스님은 역경보살로 칭송되며 50여 년을 인재양성과 역경사업에 헌신한 교학의 상징적 존재"라며 "동국대 인사위원회가 종단과 역경원장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종단과 종단 원로스님에 대한 큰 결례"라 지적했다.

이어 준비위는 "월운 스님의 일방적 해임은 종단 역경불사와 교학에 매진하는 교수·강사스님들의 의기를 짓밟는 폭거"라며 전국 강원 교직자스님 및 후학제자를 비롯한 사부대중의 참여와 동참을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 무량종

승려(사미.사미니) 법사 득도희망자 모집공고



미타종지 근본 도량 대한불교 무량종 지리산 총본산 금강계단 에서는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승가의 청정지계 가풍을 확립하고자 **승려(사미. 사미니)법사.득도 희망자 방부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 하오니 뜻있는 분은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1.불심이 견고하며 민.형사상 결격 사유가 없고 득도 자격을 가진자로서 승려나 법사 과정을 희망하고 정상적인 승적을 갖고져 하시는분.
2.사설 사암(寺庵)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단등록을 못하였거나 출가 수계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승려. 포교법사 자격을 얻어 출가하고저 하시는분.

■ **모집인원** : 00명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

■ **면 접** : 2009년 3월 18일 오전 11시

■ **면접장소** : 무량종 총본산 종무소(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칠보정사**)

■ **교육기간** : 1차 – 2009년 3월 18일(수) 부터 ~ 3월 24일(화) (7일간)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주민등본 1통. 여권사진 3장.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준 비 물** : 법복. 장삼. 목탁. 요령. 필기도구. 세면도구 ■ **교 육 비** : 300,000원

■ **접수문의** : 055)882-1599 (총무원) / 055)883-7771, 7790 (총본산)

불기 2553(2009)년 2월 1일

대 한 불 교 무 량 종 총무원장 보 경

캠퍼스에 절·교회 세워도 돼?

종자연 '대학설립… 규정' 개정령 반대의견서 제출

대학 캠퍼스 내 종교시설 건립 등을 가능토록 한 법안(대통령령)이 추진돼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1월 9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 · 운영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29일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종자연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무시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대학 교육 이념 훼손 △종교간 위화감 조성 △교육시설 이용시 출입강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개정령에 따르면 개인 및 기관이 사립대학 안에 사찰 · 교회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쇼핑몰, 헬스클럽 등 각종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막강한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교회들이 기부금 등을 대가로 대학 내 교회설립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현재 종단 내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공식의견서 전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중이라는 조계종 총무원의 미온대처를 두고 교계 일각에서는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자연이 교과부에 이의신청한 29일이 법적 이의신청 마감날로 지금 검토 중인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 발언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20일 동안 언론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될 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밟아 해당단체에 재통보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제처 법령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된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미륵사지 세계문화유산 추진

전북도 익산역사문화지구 8대 과제 발표

최근 석탑서 국보급 유물 505점이 발견된 미륵사지(국보 제11호, 본지 제716호 보도)를 포함한 익산지역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1월 29일 '익산역사문화지구 역사교과서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유네스코 등재는 익산시 왕궁면 · 금마면 일원의 문화유산과 미륵사지 등을 종합 보존 ·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28일 국토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을 초청해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우선 2월 중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을 정부가 인정한 국내 후보를 말한다.

이외 8대 과제는 △사리장엄구 등 국보급 유물 도내 보관 전시 방안 추진 △역사적 가치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우수성 지속적 홍보와 관심유도 방안 추진 △금마면 · 왕궁면 일대의 문화유적과 관광사업 연계 방안 수립 △미륵사 복원 및 주변정비 추진 △미륵사지유물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건의 △관계전문가 및 민간협력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다.

김진성 기자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보고서 발간

조계종 문화부 "보전 기반 마련하고자"

불교의식의 백미로 꼽히는 영산재, 화려한 색채예술인 단청 등 불교의식 및 예술 등 불교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1월 21일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목 조사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을 불교의례 · 불교예술 · 불교생활으로 나눠 2008년 7~12월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불교무형문화재의 국가 지정현황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종목 분류 △현행 불교의례와 행사 등이 수록됐다.

수경 스님은 "불교 유형문화재는 사찰에서는 성보로 봉안되고 소장 박물관에서는 주요 유물로 보존중이나 무형문화재는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전승해야 할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내용을 파악해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참선수행도량으로 꾸릴 것"

부산 선암사 내홍 끝… 원범 스님 주지 진산식

주지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부산 전통사찰 선암사가 1월 28일 대웅전에서 주지 진산식을 갖고 화합과 수행도량으로의 재도약을 발원했다.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에서 원범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일들로 주지소임에 소홀해 아쉬웠던 만큼, 앞으로 임기 4년간 선암사 신도들을 위한 진정한 주지로서 참선수행도량으로 잘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암사는 2008년 9월경 원범 스님의 전 주지 임기만료 후 본사인 범어사에서 임명한 재산관리인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지 임명이 늦어지자 주지 소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박지원 기자

"종조 가르침 이어 밀교 중흥"

총지종 종조 탄신102주년

총지종(통리원장 원송)은 1월 29일 서울 총지사에서 '원정(苑淨) 종조 탄신 10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령 효강 정사는 "법신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시(宣示)하신 대성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종조탄신일을 맞아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복지 예산 늘려 이웃 도울 것"

봉은사 2009년 종무계획 발표

봉은사가 2007년 12월 재정을 공개한데 이어, 2009년 종무계획에 신도회 임원을 참여시키며 투명사찰경영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봉은사는 1월 22일 경내 선불당에서 주지 명진 스님과 진화 스님(총무부장), 신도회 황남수 회장, 황채운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종무계획' 예산과 주요 사업을 확정 · 발표했다.

명진 스님은 "사부대중 참여가 늘어야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그것이 불교를 위한 것"이라며 "신도는 자신의 시주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은사의 재정 공개에 따르면 2007년 3700가구, 2008년 4100가구가 신규 신자로 등록했고, 총 신도등록 가구는 4만여 가구(20만명 추정)에 이른다. 2009년 예산은 114억원으로 2008년 보다 10% 증가했다.

명진 스님은 "복지 예산을 확충해 공부방 운영 등 어려운 이웃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東大 한의 · 물리학 최우수 평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동국대(총장 오영교) 한의학과 물리학 분야가 취우수, 경제학 분야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월 29일 '2008년 학문분야 평가결과발표 및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평가결과 한의학분야는 동국대(경주캠) 등 6개교가 최우수, 경원대 등 4개교가 우수대학으로 꼽혔다. 물리학분야는 동국대(서울캠) 등 18개교가 최우수, 강원대 등 14개교가 우수대학에 평가됐다. 경제학분야는 경희대, 건국대 등이 최우수, 동국대(경주캠) 등 190개교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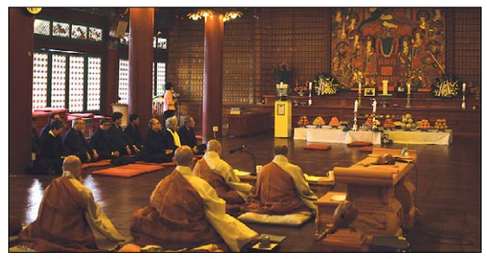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용호종합복지관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혜총)은 1월 22일 '설맞이 사랑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200여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 총 400세대에 떡국거리 및 생필품으로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박지원기자**

봉은사 故 백남준 3주기 추모제 봉행



서울 봉은사는 1월 29일 경내 법왕루에서 故 백남준 선생의 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족과 일본 백스튜디오 관계자,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과 100여 신도가 참석했다. **노덕현기자**

관음정사 부산 동구청에 쌀 50포 보시



부산 관음정사(주지 유심)는 1월 21일 부산 동구청에 부산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쌀 10kg 50포를 전달했다. 관음정사는 매년 2회에 걸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성기자**

안양불교대학 독거노인 등에 쌀 전달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주지 현호)은 1월 22일 안양시 31개동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62명에게 쌀 20kg 1포씩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안양시 법륜회 개인택시 봉자들의 택시 운송 지원으로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됐다. **조동섭기자**



미래를 여는 선지식 도량 성거산 보명사
53선지식 초청대법회
bomyungsa.org

선지식 도량 건립을 위한 보명사 천일기도 및 땅한평사기

귀의 삼보 하옵고,
천안(天安) 성거산(聖居山) 보명사 !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니 天安이라 하며 이렇게 복된 이름을 지니는 까닭은
남서 화산(華山)과 북동 성산(聖山)의 가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이러한 북동 성산의 신령스러움에 감흡하여 성인이 머무를만한 곳이란 뜻으로 聖居山이라 이름 짓고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역대왕들이 재(齋)를 올려 국운창성과 민안(民安)을 기원하였으며 지금도 면면히 맥을 이어오고 있던 중 성산(聖山)의 문을 열어 보명(普明)을 일구고 화엄(華嚴)을 설하신지 20여 성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선재가 되고, 때로는 선지식이 되었으며, 때로는 또 다른 선지식을 모시거나 배출하는 시자(侍者)의 기쁨과 사자(師子)의 복을 사부대중과 함께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소 불사도 원만 성사되어 제법 가람의 모습도 갖추고 53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비롯한 끊임없는 기도와 수행정진으로 천안지역을 넘어 전국의 주목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선도적 포교 활동도 원만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보명사의 터 - 5만여평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확보해야 할 중차대한 불사입니다.
이제 시절인연이 도래하였음으로 여법한 부처님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천일기도 및 땅 한평 불사 "를 불자님들과 함께 봉행 하고자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대해를 이루듯 불자님의 발심은 성거산을 영원한 부처님 도량으로 이루어 세세생생 선지식을 만나며, 머물게 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부디 무루 동참하시어 법을 전하고 복 밭을 가꾸어 장애 없고 행복한 삶으로 회향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선지식도량 건립불사위원회

불사동참방법

불사에 마음내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일기도 및 땅한평사기 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가정에 화목함이 샘솟고
일터와 인연들은 원만하게 성취되며
불보살의 가피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세세생생 좋은 곳에 태어나 좋은 스승 만나 뵙고
환의로서 성불하길 바랍니다.

• 땅한평 : 5만원 • 1구좌(10평) : 50만원 • 총면적 : 5만평
• 천일기도 : 200만원(분할납부 가능) ※각 백일기도는 20만원
• 계좌번호 : 농 협 351-0001-7235-63 대한불교조계종 보명사
우체국 311993-01-002169 대한불교조계종 보명사

불사에 동참하신 분은 사적비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천일기도

	기 도	양 력	음 력	요일
입재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	09년 2월12일	09년 1월 18일	목
2차	아미타경	09년 5월23일	09년 4월 29일	토
3차	금강경	09년 8월31일	09년 7월 12일	월
4차	자비도량 참법	09년 12월 9일	09년 10월 21일	수
5차	발심수행장 3독	10년 3월19일	10년 2월 4일	금
6차	관세음보살 보문품	10년 6월27일	10년 5월 16일	일
7차	원각경 보안보살장	10년 10월 5일	10월 8월 28일	월
8차	보현행원품	11년 1월13일	10년 12월 10일	화
9차	금강경	11년 4월23일	11년 3월 21일	금
10차	108참회	11년 8월 1일	11년 7월 2일	월
회향		11년 11월 8일	11년 10월 13일	화

보명사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2리 117-1
TEL.041-522-3362 FAX.041-523-3361
www.bomyungsa.org

불광불교대학 · 대학원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

불광불교대학 (2년제 4학기)

불광불교대학 · 대학원은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통하여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고, 신행과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가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조계종에서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교과과정

	1학기	2학기
1학년	근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식문, 바라밀수행법	대승불교, 계율론, 바라밀신행과 불광운동
2학년	경전강독, 포교와전법 불교사	선불교, 불교사회복지 보현행원품

※ 교과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
◇ 아침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 ◇ 저녁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 지원자격 및 등록금
1.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2. 불교기본교육 수료자(미수료자는 1학기내에 수료하셔야 합니다)
3. 등록금 학기당 25만원

■ 제출서류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사진2장(반명함판), 기본교육수료증 사본

■ 특전
1. 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2. 불광법회 명교사 자격 부여
3. 학업성적 우수자 불광교수단 등용

대학 · 대학원 모집일정
1. 모집기간 : 1월 19일(월) – 2월 18일(수)
2. 합격자발표 : 2월 20일(금)
서류전형을 통한 인터넷 발표
3. 등록기간 : 2월 22일(일) – 2월 28일(토)
4. 입학식 : 3월 1일(일)
오후 2시 불광교육원 3층

입학문의 : 불광사 불광교육원 02)417-2551
www.bulkwangsa.org

불광불교대학원 (2년제 4학기)

불교대학원에서는 불교경전 및 수행법에 대한 심화학습과, 현대사회에 필요한 불교응용과정을 통해 불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교과과정
불교대학원은 학점제로 운영됩니다. 매학기당 2~3개의 강좌가 요일별로 개설되며,
이 중 선택하여 4학기 동안 20학점 이상 이수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 개설강좌
초기불교 / 유식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반야 · 중관 /
대승기신론 / 선사상특강/ 경전강독 등

■ 모집분야
◇ 아침반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 저녁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 지원자격 및 등록금
1.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2. 등록금 학기당 25만원

■ 특전
1. 불광전문포교사 자격 부여
2. 학업성적 우수자 불광교수단 등용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09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학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이 되어 1987년 "영산재" 보존회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승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학,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4~7	마일운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7	이기봉	30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법고춤	수	오후1~7	한해사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등	목	오후1~7	이기봉	재학생/졸업생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1~4	한활안	30
불교음악&무용(이론)	불교음악/무용	화	오후4~7	김영렬	30

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영산재의례절차 I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7	마일운	30
범패실습 I	영산과정	목	오후1~7	조인각	30
영산재의례절차 II	상주권공과정	금	오후4~7	이기봉	30
작법실습	작법과정	수	오후1~7	한해사	30
영산재의불교예술적특징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화	오후1~4	한활안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불교의식	화	오후4~7	김영렬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각 배
교수요목
각배과정
요 일
목
시 간
오후 1~7
교수진
조인각
모집인원
약간명

응 시 자 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교역자 및 일반인
-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 출 서 류
- 수 료 과 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 학점은행제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편 입 학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 형 일 정 2009년 1월 19일 ~ 2월 28일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태고종 2급 정표고사 자격증을 수여
3.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2008년 본교주관 해외공연 : 일본오사카한국문화원 초청 시연, 중국하북성 백림선사 영산재 시연, 통영 임란 호국영령천도 영산대재 등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02)392-3234 / FAX 02)392-3239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9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4기생을 모집함

2. 불교학과

교과목 및 교수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 대학학장) · 정병조교수(동국대) · 김상현교수(동국대) · 차차석교수(동국대) · 묘주스님(동국대) · 태원스님(승가대)외 교계석학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현재 접수중 입학금 250,000원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정규반) (통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3. 웰빙의 상징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과정) 신입생 모집

웰빙시대가 요청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은 생명존중의식과 수행식으로,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 및 사찰음식의 전문가 양성,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도 교육합니다.



과 정	기 간	요 일	내 용	지도교수
사찰문화 음식학과 (30명)	기본과정 1년 (2학기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전통음식과 대중화음식 조리법 교육 · 사찰음식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 · 사찰의 절기에 맞춘 실습 교육	정산스님

● 개강 : 2009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4. 3월 개강학과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2년)	· 금강경①, 한문해석법, 반야심경소, 중국고전①(노자)	심재동(동국대교수), 임채우(원광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차수행법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적경스님, 오양가교수,김진숙교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미혜교수
요가삼밀학과(2년)	· 요가이론, 요가생리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아사나실습, 삼밀수행법	안지용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5.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산3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3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 요가삼밀학과(정규: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9년 2월 1일 ~ 2009년 3월 11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장례문화학과)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요가삼밀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사찰음식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6. 개강일시

한문학과 : **3월 5일 (목),** 다도학과 : **3월 10일 (화),** 불교미술학과 : **3월 10일 (화)**
불교장례문화학과 : **3월 10일 (화),** 사찰음식문화학과 : **3월 11일 (수)**
요가삼밀학과 : **3월 9일 (월)**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http:// www.dongsanbud.net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오직 행할 뿐…



자신의 집 도량으로 개조, 범어사에 '명의 등록'
각자 근기에 맞는 수행할 수 있도록 불자 지도
양로원 · 무료급식소 운영하며 '무주상보시'

겨울이라 하지만 부산의 바람 속에는 차가움 보다는 훈훈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다. 장전동에 위치한 금정선원은 재가불자들의 수행 도량으로 부산 불교의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금정선원은 정숙녀씨(56)가 원력을 세워 자신의 집을 개조하여 이루어 낸 공간이다. 정숙녀라는 이름보다는 대명화 보살로 더 알려진 그녀는 한 눈에 걸출한 여장부로 느껴졌다.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인 금정선원은 법당 · 선방 · 양로원 · 공양간 · 요사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심의 여느 사찰과 다름없다. 금정선원을 개원하고 나서는 바로 범어사에 명의 등록을 했다.

신도회 조직이 없어도 금정선원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철저하게 40여 명이 입선과 방선을 지키며 정진하고 있다. 2층 법당과 3층 선원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죽비 삼성이 울려 퍼진다. 범어사 대정 큰스님께서 화두참선을 지도해주시고 있으며, 대명화 보살은 금정선원의 책임지도와 안내를 맡고 있다. 초심자들을 위해 사찰 예절과 신행생활을 지도하고 있으며, 다도반을 개설하여 선차(禪茶) 수행도 병행하고 있다. 금정선원에서는 초심자부터 여든이 넘은 베테랑 불자까지 다양한 불자들이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대명화 보살은 "날마다 병원을 다니던 할머니 한 분이 하루 4시간씩 참선을 하고부터는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면서 참선수행의 무한한 에너지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대명화 보살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학창시절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없는 불우한 친구들에게 학비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그들의 벗이 되어주었다.

"사람들은 저보고 부잣집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으니 원도 한도 없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 가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2시에 일어나 범어사 새벽예불에 참여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예불을 모시면서 날마다 5000배씩 하기도 했지만, 그녀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수십 년 간 토굴수행을 이어온 대정 스님이 범어사 상당법문에서 '도(道)'라고 이르는 한 마디에 대명화 보살은 알 수 없는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 후 대정 큰스님의 가르침 아래 체계적으로 화두 참선을 시작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나만 알고 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정 스님의 가르침을 보다 많은 불자들에게 전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정진하겠다고 발원했습니다. 나와 더불어 이웃이 행복해야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녀의 발원은 결실을 맺어 16년 전 부산 두실에 대명선원을 개원하였고, 참된 신앙에 목말라있던 재가불자들에게 새로운 수행방향을 제시했다.

"화두 참선이 처음에는 어렵고 잘 안되나 굳은 의지로 수행정진을 계속하다보면 번뇌망상이 차츰 사라져요. 화두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활구(活句)이지요. 도는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오고감 그대로 도가 됩니다. 성불은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으니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명화 보살은 선원을 열기 전부터도 '소년 · 소녀 가장 돕기' 등 불우한 이웃을 보면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등 무주상보시를 끊임없이 행하였다. 대명선원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무료급식소를 열었다. 사업실패나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적 · 물질적 고통을 겪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도와주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할 때까지 선원에서 무료 숙식하게 하고 자녀들의 등록금까지 지원하였는데 그 수가 적지 않다.

대명화 보살은 하루에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난다. 여기저기서 대명화 보살의 보시행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 불교에 입문하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 등 다양하다. 그녀는 이런 저런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하루해가 짧기만 하다. 정진할 시간이 충분치 못하기에 때로는 새벽 서너 시까지 화두를 참구하기도 한다. 그녀는 보시행도 열심이지만 자신의 수행 정진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다.

대명선원을 개원할 때 12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는데 그 수가 점점 불어나 6, 70명이 되었다. 2004년에 대명화 보살은 사재를 털어 금정선원을 열었으며, 무료급식소 또한 크게 열었다. 하루에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백여 명에 이른다. 오갈 데 없는 노인 15명을 금정선원 1층 양로원에 모시고 있다. 가정의 아픔을 안고 선원으로 온 어르신들 중에는 선원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분도 여럿 있다. 대명화 보살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직접 장례식과 49재를 지내주기도 한다. 그리고 한때 노숙자였던 예닐곱 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선원 부근에 따로 집을 마련하여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대명화 보살이 지극정성으로 수발하고 있는 노인들 중에는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중풍, 알콜중독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대명화 보살의 몫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대명화 보살의 지도를 받아 기도와 참선 수행을 함으로써 완쾌되거나, 완쾌에 가깝도록 좋아져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도 제법 된단다. 약사여래보살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분들 중에는 선(禪)의 참맛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선수행을 하면 마음의 안락을 얻을 수 있으니 좋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으니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면서 저는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내다 버린 노인들 수발하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했더니 "이 일이 힘들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한지 십년도 훨씬 넘었지만, 노인들을 대하면 전생에 내 부모들처럼 느껴져 똥오줌이 더럽지도 않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답한다.

대명화 보살은 자비를 베풀되 자비를 생각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행에 대해 일체의 상 없이 '오직 행할 뿐'이다. 대명화 보살은 화두참선을 통하여 보리를 구하는가 하면, 전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삶 그대로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①

"분별 없는 깨끗함 바로 보라"

[원문]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
–가야산 해인사 법보전

[번역]
깨달음이 있는 곳은 그 어디 인가?
지금 생과 사가 있는 이 자리다.

[선해(禪解)]
내가 불가(佛家)에 들어 온지도 벌써 오십 삼년이 지났다. 나에게 출가(出家)의 의미는 매우 깊다. 절에 있는 문(門)의 의미는 세속의 문과는 상대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속가(俗家)에 있던 사람이 출가의 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게 바로 절에 있는 문이다. 말하자면 절의 문은 속세와 법계(法界)의 경계인 것이다.

그럼, 절의 문은 수행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 절 문밖의 세상은 오욕락(五慾樂)으로 인해 번뇌가 끊임없이 끓는 곳이요, 절 안의 세상은 바로 깨달음이 있는 곳이다. 때문에 출가자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사문(沙門)이 될 수 있다.

해인사 법보전에 걸린 주련(柱聯)을 읽어보면 감히 그 깨달음의 극치를 온전하게 맛볼 수가 있다. 그 어떤 깨달음도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말이 있다. 깨달음을 달리 표현하면 열반 · 해탈 · 피안 등 수많은 언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이다.

나는 절의 문을 통과하면서 오직 부처가 되기 위해 출가를 감행했다. 그리고 출가를 한지 무려 오십 여 성상(星霜)이 흘러갔다. 그동안 나의 가사(袈裟)에는 수없이 많은 무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려 얼어붙었으며 춥고 배고프고 견디기 힘든 세월의 때가 온전히 묻어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깨달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그만큼 부처의 길은 단 한순간에 올 수도 있으며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오직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과연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돼 그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 숱한 회한과 불굴의 정진을 하면서도 결국 내가 서 있는 이 곳,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절에 걸려 있는 주련의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매우 깊다. 모든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주련에 적힌 그 한 줄의 함축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 기둥에 적혀 있는 단 한 줄의 선구(禪句)는 그 절의 얼굴이며 그 법당(法堂)의 직언(直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출가자는 주련에 적혀 있는 조사스님들의 법문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며 마음 깊이 각인(刻印)해야 한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행자나 불자들은 주련에 적힌 부처나 조사의 깊은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이것은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모르는 것과 같고 수행자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법도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해인사 법보전에 적혀 있는 주련의 의미는 심히 마음 안에 큰 경종을 울리게 한다. 불가에는 피안(彼岸)이란 말이 있다. 즉 깨달음이다. 그런데 그 피안은 단순하게 말하면 '저쪽 세상'이라는 뜻이다. 그럼 '이쪽 세상'은 무엇일까? 바로 생사(生死)가 있는 자리이다.

절문은 속세와 법계의 경계 출가자 반드시 통과해야
주련 의미 모르면 자식이 부모 이름 모르는 것과 같아

그런데 주련에는 깨달음이란 저쪽이 아닌 바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다분히 이속에는 선(禪)의 참맛이 물씬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의 원류는 달마선이 그 모태이다.

나는 오늘 날 많은 불자들에게 선사상(禪思想)을 이야기하면서 대체적으로 달마 대사와 혜가 스님에 대한 것을 많이 인용한다. 이 보다 더 쉽게 불자들에게 선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혜가 스님은 혼자 수행을 하다가 도를 깨치지 못해 어느 날 달마 대사를 찾아갔다. 마침 소림굴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달마 대사는 혜가 스님의 인기척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오직 면벽수행만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달마 대사의 수행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지만 눈이 쌓여 어느새 자기의 허리춤까지 차올랐으며 강추위는 그의 몸을 얼어붙게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마침내 달마 대사가 혜가 스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네는 누구이며, 어떻게 왔는가."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도를 구하러 왔다고?"

"네. 달마 스님에게 제가 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 마음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저도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수행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며 또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제 온몸을 덮었습니다."

달마 대사는 깊은 생각에 잠시 잠기다가 이내 이렇게 말을 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것은 형상이 없어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너에게 있었던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들은 이 순간 사라졌다. 내가 지금 그것들을 없앴노라."

이 때부터 혜가 스님은 자기 자신을 옭아매던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음을 스스로 느꼈다. 결국 혜가 스님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때부터 달마 대사의 제1 제자가 됐다. 그가 이렇게 큰 고승의 제자가 됐던 것은 폭설이 내리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달마 대사를 만나겠다는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또한 하루아침에 큰 깨침을 이루게 됐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져 오너라"에 있다. 이것이 바로 선이 추구하는 마음이다. 결국 마음이란 불안한 것도 아니요. 초조한 것도 아니며, 또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분별하지 않는 깨끗함이다.

오늘 절을 찾아 가는 모든 불자들도 혜가 스님이 가진 그 마음을 들고 가라!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해인사 법보전에 있는 주련의 깊은 뜻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

마음 밖에 불성 따로 없다

[원문]
三界混起 同歸一心 前佛後佛 以心傳心 不立文字.

삼계가 혼돈으로 일어나나 모두가 한마음(一心)으로 돌아가느니라. 앞서 깨달은 부처님이나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서로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시니, 본 바탕자리에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느니라.

[해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깨달은 우주의 실상에 대해 법문하셨지만 하근기 중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문을 계속 설해야 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제석천왕의 세 번이나 간청하므로 <아함경>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를 말씀하셨고, <반야부>에서 진리의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숭산 소림굴에 조성된 달마 대사상.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이은 '28대 조사'인 달마 스님도 성불해 스승 반야다라 존자로부터 '동쪽으로 가 법을 전하라'는 부촉을 받고 중국으로 오셔서 처음에 선을 전하고자 했지만, 교학이 성한 터라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양 무제를 통해서 선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양 무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문무백관을 상대로 <금강경>을 강의했지만 그 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인연이 아니구나!'하고 느껴서 소림굴로 들어가 9년 동안 면벽을 하시고 제자 혜가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전하게 되었는데 부처님으로부터 28대 조사가 되고 중국에서는 초조(初祖)가 됩니다.

달마 스님은 혈맥론(血脈論)에서 심외무불성(心外無佛性) 즉, '마음 밖에는 불성이 없다'하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크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로 나뉩니다. 욕계는 우리가 사는 지옥으로부터 육욕천까지 욕심을 끊지 못하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불교의 수행목적은 깨달음에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해야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달마 스님은 '우주의 실상인 진여당체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의식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꿈을 꿀 때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꿈속에서 우리가 끄달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잠이 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경계 대상도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인데 사실인 것처럼 끄달려 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끄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처럼 집착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동안 무수히 익혀온 습을 녹이는 것이 수행인 것입니다.

설탕도 분석해 들어가면 본래는 맛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본질은 모양이 없는 것이거든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표현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야기 하는데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문하시고는 한 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진리 실상 자리는 설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교 핵심인 선 법문은 다 이 '모양 없는 바탕'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달마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집착하면서 사는 세계가 바로 욕계라고 이야기 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 내재돼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중생으로부터 인간세계, 천상세계, 육욕천까지 이렇게 욕심으로써 존재하는 세계를 욕계(欲界)라고 표현합니다.

색계(色界)는 수행을 통해서 욕심은 다 끊은 경계입니다. 식욕, 수면, 명예욕이나 재물욕, 음욕까지도 다 끊어졌지만 아직도 물질에 대한 집착만은 끊지를 못한 거예요.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을 아직 끊지 못하고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색계 18천입니다.

무색계(無色界)는 욕심도 다 끊어졌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다 끊어졌지만, 아직도 마음이다 하는 생각이 남아 있다 하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색계는 한두 생의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닙니다. 선에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즉 견성하면 성불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육신통을 자재하게 쓸 때 참다운 성불이라 하겠지요. 아직도 물질에 끄달려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윤회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달마 스님은 '삼계가 혼돈으로 일어나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고 설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도 본래는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니, 부처님이니, 법이니, 불성이니, 법성이니, 진여니, 진공이니, 반야니, 이런 표현들은 그 모양 없는 실상의 자리를 부득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하는 말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불자님을 위한 특별행사! 선착순 30분께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나산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나산원통형 고열량 / 카본히터
사용장소/공장용 · 업소용 · 농업용 · 사무실용
강력난방 국내생산 1년간 A/S
NS-76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2.5㎾.약: 1.2㎾.
• 회전기능 : 좌우 90도
• 높이조절 : 상하. 135㎝ ~ 100㎝
• 중량 : 약 8.5kg
• 크기 : 반사경(60㎝) 높이 : 135㎝
NS-78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1.8㎾.약: 900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 높이조절 : 상하. 135㎝ ~ 100㎝
• 중량 : 약 6.5kg
• 크기 : 반사경(54㎝)높이 : 135㎝
●산업용(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5㎾×8시간=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19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상가용(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시간=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17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NS-7000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나산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100% 국내산 /중국산과 비교불허!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강력한 화력! 동급최대화력!
◀DD-2000(적용면적 : 5평형)
열량 / 2㎾ • 사이즈 / 270×470mm • 무게 / 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8=1,086원
특별할인가: 69,000원 (택배비 2,800원 소비자부담)
◀NS-7000(적용면적 : 10평형)
열량/ 2.9㎾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9㎾×8=1,575원
특별할인가: 89,000원 (택배비 2,800원 소비자부담)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나산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나산전기히터!
www.nsheater.com * 주문하시면 3일이내에 배송됩니다.
문의전화 080-001-0022
입금계좌 :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택배비 2,800원 소비자 부담)

백양사 · 서원 등 찾아다니며 '인생행로'에 대해 고민



현각 거사는 혜암 스님 속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스님의 누이동생인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외할아버지 김원태(金元泰)와 외할머니 정계선(丁桂仙)은 어린 현각에게 출가한 둘째아들 혜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지금도 현각은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어린 시절을 보낸 덕산마을을 찾아가는데, 마을 왼편 대숲 아래 남향으로 자리한 외갓집에는 팔순의 외숙모와 외사촌 형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촌수는 가까운 편이다. 팔순의 외숙모는 스님의 속가 형수이고, 현각이나 그의 외사촌 형은 스님의 조카인 것이다.

장성읍 덕산마을은 백양사 가는 도로 초입에 있어 마을 아낙네들은 조상 때부터 백양사로 불공을 드리러 다니곤 했다. 스님이 출가 전 백양사를 오갔던 것도 그런 마을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다.

누가 보아도 덕산마을은 동과 남, 그리고 북으로 솟은 산자락으로 둘러싸여 금닭(金鷄)이 알을 품고 있는 듯했고, 서쪽으로 넓게 터진 들판은 금닭의 먹이곳간처럼 보였다. 또한 마을 어귀의 250여 년 된 느티나무 고목은 금닭이 비상하기 위해 관망하는 솟대 같았다.

덕산마을을 다시 찾은 현각의 증언이다.

"큰스님의 속가 아버지인 외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장성읍 성산리에 있는 외갓집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성산보통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산마을 친가에서는 일본에 가기 전 잠깐 사신 것입니다. 큰스님 책을 보면 덕산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기록입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 사신 집도 지금 큰스님의 형수님이 사신 집이 아니라 같은 고샅길로 더 올라 가서 있는 작은 집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덕산 3리 730번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아봐서 압니다. 지금의 집은 큰스님께서 일본에서 돌아와 당시 1원 50전인가 주고 외할아버지께 사드린 집입니다."

스님의 출가 전 이름은 김남영(金南榮)이었다. 7남매 중 차남으로 집안 형편은 풍족하지 못했다. 장성읍 성산리에 있는 외가가 더 잘 살았고, 외가의 인척들 중에는 장성군의 인물들이 많은 편이었다. 남영은 외가로 가 보통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 친가는 집안 일을 거들어줘야 할 만큼 궁색했으므로 공부할 분위기가 못 됐던 것이다.

그렇다고 어린 남영이 외가에서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린 남영은 외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보통학교를 다녔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외갓집 동생이나 조카를 돌보았다. 조카 중에는 서너 살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는 남영이만을 따랐다.

"남영아, 애기 좀 보그라잉. 니가 학교에서 오기만 기다렸당께."

어린 남영은 아이를 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울다가도 남영을 보면 울음을 그쳤다. 남영은 아이가 울어도 절대로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아이가 왜 우는지 차분하게 살폈다. 아이의 표정을 보고는 배가 고파서 그런지 오줌이 마려워 그러는지를 알아냈다. 아이는 어른들처럼 거짓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남영은 천진한 아이를 좋아했고, 자신도 아이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남영이 외사촌 동생이나 조카들을 돌보고 있으면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친구 중에는 악동도 있었다. 장난이 심한 악동은 아기를 건드려 울리곤 했다.

"건드리지 말아라. 왜 아기를 울리냐."

악동이 건드려 아이를 울리면 남영은 울음을 곧 그치게 했다. 장난꾸러기 악동은 그 놀이가 재미있어 날마다 찾아와 아이를 울렸다. 남영은 악동의 장난을 단번에 그치게 할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좋은 말은 통하지 않았다. 아이를 울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사정해도 흘려들을 뿐이었다.

남영은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 궁리했다. 학교 가는 길에서도 그 생각만 했고, 수업 중에도 그 생각만 했다. 집으로 돌아와 외사촌 동생이나 조카들을 돌보면서도 그 생각만 했다. 그러나 악동의 심술궂은 장난을 막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악동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아이를 울리고 나서 즐거워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다. 악동이 또 찾아와 아이를 울리려 했다. 순간, 남영은 다듬이 방망이를 들어 악동의 손을 내리쳤다. 악동이 비명을 지르며 마당에 나동그라졌다. 손을 감싸 쥐며 소리쳤다.

"남영이가 날 죽이네!"

이웃집 사람들이 쫓아와 남영을 나무랐다.

"네가 한 짓이냐."

"제가 버릇을 고쳐주고자 때렸습니다. 웃는 아기를 울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입니다."

"그렇다고 다듬이 방망이로 치다니 지나친 것이 아니냐."

"저는 수없이 좋은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 친구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알아들었는데 왜 쳤느냐!"

논일 나갔던 외갓집 식구들도 돌아와 남영을 질책했다. 작은 외삼촌이 악동의 손에서 나는 피를 보고는 말했다.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구나. 어서 사과해라."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 친구의 손은 정신을 한번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때렸습니다."

악동을 때리지 않고 말을 알아듣지 못한 악동의 손을 때렸다는 남영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외삼촌도 더 이상 남영을 꾸짖지 않았다. 대신 손을 다친 악동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달랬다.

남영의 다듬이 방망이질은 큰 효과를 냈다. 이후 악동은 아이를 건드려 울리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집으로 놀러 다니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키는 땅강아지만 하지만 다듬이방망이보다 더 단단한 놈이니 니들도 조심해야 된다."

남영이 약하게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강골의 기질인 것은 사실이었다. 방학이 돼 아버지를 도우러 가면 식구들이 긴장했다. 아버지가 남영을 어려워할 때도 있었다. 마당가에 핀 꽃을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꺾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남영이 선한 사람은 꽃을 꺾지 않는다고 언짢아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방안에 머리카락 한 올 그대로 놔두는 법이 없었다. 남영이 신는 고무신도 항시 마루 밑에 가지런하게 놓였고, 흙 한 점 묻어 있지 않았다.


그림 · 최문정

속세 조카 현각 거사 큰스님 어린시절 증언
"외유내강형에 잠 적고 반듯한 것 좋아해"

남영이 밟고 다니는 마을의 고샅길도 마찬가지였다.

눈이 내려 쌓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주변부터 시작해서 마을 앞 빨래터, 실개천을 따라 난 고샅길까지 샅샅이 쓸었다. 천성적으로 잠이 적고 반듯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남영은 성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행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했다. 장성군에 소재한 서원을 찾아다니며 그곳의 유생들에게 한학을 귀동냥하기도 하고 며칠씩 머무르며 익히기도 했던 것이다.

훗날 원당암 법상에 앉아 법문하면서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집안에 경사가 있다) 등의 구절을 <주역>에서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출가 전 서원을 돌아다니며 듣고 배웠던 문장들이었다.

실제로 장성군에는 여러 서원이 산재했다. 읍에는 변씨(邊氏) 조상들을 배향하는 봉암서원(鳳巖書院)이 있고, 김인후를 배향하는 황룡면의 필암서원(筆巖書院), 김은을 배향하는 진원면의 학림서원(鶴林書院)과 기정진을 배향하는 고산서원(高山書院) 등이 있었다. 서원에 가면 서원 문답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서원지기가 있고, 향교를 출입하는 유생들이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양사도 남영이 자신의 심란한 마음을 달래는 곳 중의 하나였다. 남영은 백양사를 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려왔다. 백양사에는 큰스님으로 불리는 만암(曼庵)선사가 있었다. 특히 백양사 초입에 자리한 청류암에는 만암선사가 암자 극락전에 광성의숙(廣成義塾)을 설립해 50여 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었다.

청류암의 옹달샘 물맛은 말 그대로 감로수였다. 백양사 스님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녹두장군 전봉준이 관군에 붙잡히기 전날 밤을 청류암에서 묵었는데, 그때 전봉준이 돌샘의 이름을 '남천감로(南泉甘露)'라고 짓고 부지깽이로 썼다고 하니 전봉준도 달콤하게 마신 물맛인 셈이었다.

백양사는 다른 절과 사뭇 달랐다. 만암 선사의 엄한 지시 때문이었다. 선방 수좌들에게도 조석예불에 반드시 참예한 뒤 선방에 들도록 했으며, 새벽에만 하는 도량석도 스님들끼리 돌아가며 저녁까지 계속하도록 했다. 그래서인지 백양사는 종일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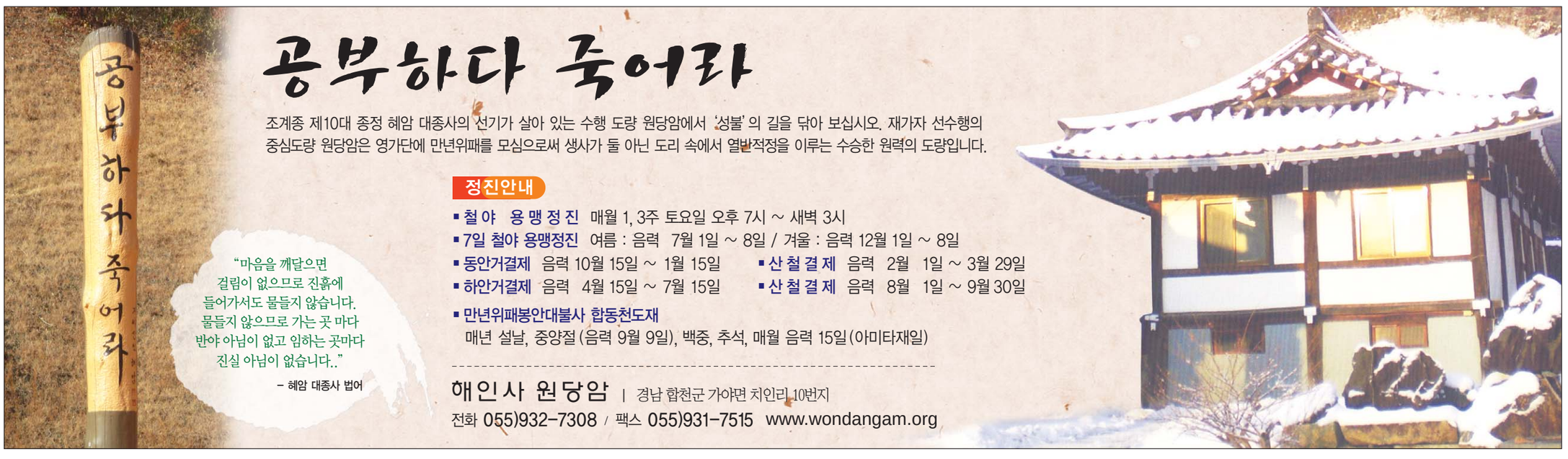
경내에는 어디를 가나 양봉으로 키우는 벌들이 웅웅 소리 내며 날아다녔다. 사미승들도 일벌처럼 쉬지 않았다. 종일 짚신을 엮거나 대나무를 깎아서 대바구니 같은 죽기(竹器)를 만들어 장돌뱅이들이 오면 팔기도 하고, 중창불사에 동참한 신도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남영은 출가의 마음이 나지 않았다. 백양사 스님들에게 빌려 읽는 <금강경> 등이 마음에 와 닿기는 하지만 갈등이 깊었다. 그래서 남영은 외갓집이 있는 읍내로 나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왜간장공장을 드나들기도 했다.

일본인 사장은 남영의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을 좋아했다. 딸만 좋아한다면 사위로 삼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남영은 일본이 얼마만큼 개화한 나라인지 일본인 사장을 통해 알았다. 조선과 달리 돈을 벌 수 있는 직장도 많고, 돈을 벌어 공부할 수 있는 전문학교가 많은 나라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는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전보다 더욱 고민했다.

현각은 외할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라며 또 증언한 바 있는데, 남영이 왜 일본으로 갔는지 그 이유는 불분명했다.

"큰스님께서는 17세에 일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뒤이어 큰스님 속가 동생인 태호 스님도 가셨으니 태호 스님이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외갓집 형편상 유학을 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돈도 벌고 고학을 하기 위해 갔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큰스님 얘기는 26세 때 해방 후 귀국하고 나서부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큰스님이 외할아버지께 집을 사준 얘기와 큰스님을 결혼시키려고 한 얘기를 소상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모 연 문



불 · 법 · 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불타의 혜명을 이어갈 갈암불사의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불초 소승의 원력이 눈밝은 불자님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1993년 현 대열사(구,고래암) 땅을 매각하였습니다. 절을 짓고자 하여 알아보니 국가 폐천부지 땅이라 허가가 나지 않아 15년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에 국가 폐천부지 땅을 매각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만큼 땅값이 올라 큰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지 못하면 15년의 세월이 물거품 되게 됩니다. 부디 땅 불사가 되어 천년만년 이어나가는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지 덕경스님은 기도도량 각시바위 밑 천일기도로써 불자님들이 성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에 정진하겠습니다.

주지 황덕경 합경

주소 : 경남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433-70번지
전화 : 055)271-9141 / 010-9312-7473
입금계좌 : 821120-52-102139 농협 [예금주 : 신지순]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애(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의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써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조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 아님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바다 건너는 이, 보기 어렵네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낭비벽이 심해 빚 더미에서 방황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천상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써레봉 아래 1100고지 토굴에서 15년간 고행

서 진 암 선 운 합장
[부설 최면연구원, 무료개인지도]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꿔 주 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웨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기도의 비밀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평생의 길흉화복을 좌우합니다. 관음정사에 오시면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목소리 체형.살갗을 만져보고 연구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좋은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보세요.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 · 노력하여 터득한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행운이열립니다.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립니다

연 락 처 011-9373-377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사암
- 주 지 : 진 공 (김종해)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85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법하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접수기간 : 상시모집
9.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범패 2기생 : 교육과정 1년
※ 영남범패 1기생 : 교육과정 6개월(고급반)

1.사물다루는법 : 도량석,조석예불,각단예불,각청(불공)시식
2.천도의식 : 49재,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상단권공,시식
3.각종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4.서울범패개강일 : 3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
5.영남범패개강일 : 3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매주 수 ·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6.자 격 : 승 · 속 관계없음
7.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8.수업료 : 매월 10만원 교재비별도

접수연락처 전화 054)762-5888 / 팩스 054)762-5889
휴대전화 011-819-7464 총무국장(지공스님)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38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사가 될 수 있다.

- ▶ 現 서울 불교대학교 대학원 교수 (現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로 활동 중인 윤한흥 교수님 직접 지도
-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4:30(11주과정)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문 의 :** 02-3482-5032, 3482-5065 한국기치유연구회

기힐링 센터

교대센터 : 02-3482-5032 / 부산센터 : 051-645-5068
고양센터 : 031-972-7585 / 분당센터 : 031-718-2718
대구센터 : 053-652-2202 / 노원센터 : 02-930-3327

문의 www.gihealing.com 02-3482-5032,5065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탈 종 공 고

승 법 (천광사) **홍 운 (천왕서원)** **상 봉 (대원사)**
지 원 (법화사) **대 운, 도 연 (대운사)** **제 법 (용천사)**
혜 련,김학영 (보덕암) **현 공,연 도,도 봉 (백암사)** **도 하 (영암사)**
혜 명 (관음정사) **해 안 (용궁암)** **지 호 (보문암)**
불 현 (용천사)

위 사찰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수요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작고 큰일들을 미연에 예방하세요. 우암사에서 명심스님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명심스님이 직접 인생운명을 상담 감정하여 드리며,
모든것이 잘 안되는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꿔주는 조상님의 천도재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사이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 즉 해와 달, 별의 움직임, 바람과 구름의 폭풍우, 천둥과 지진, 화산폭발 등의 자연현상이 모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믿었으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리켜 기(氣)라고 불렀습니다. 불의의 재난을 미리 방지하며 운기를 새롭게 마음먹은대로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氣)의 힘!!!!

주역(周易)과 영(靈)의 힘을 모아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명심스님. 인생운명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자신에게 미치는 운세의 영향을 영(靈)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스님에게 감정하여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재물은 언제 오는가?
2.건강은 왜 안 좋은가?
3.부부갈등은 왜 있는가?
4.출세운은 있는가,없는가?
5.승진시기는 언제일까?
6.무슨 직업이 맞는가?
7.결혼시기,배필은 어디에 있는가?
8.가출한 사람은 언제 귀가 하겠는가?
9.매매는 언제 되는가?
10.나는 왜 이별을 해야 하는가?
11.나는 왜 가정에 환난이 많을까?
12.하소연 할 곳이 왜 없는가?
13.나는 왜 구설수가 많을까?
14.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가?
15.나는 왜 자식이 없는가?
16.나는 왜 자식복이 없는 것일까?
17.이름은 왜 잘 지어야 하는가?
18.묘터와 수맥은왜 중요한가?
19.음택이장양택감정 답산
20.모든일이 잘되지 않는 분을 위한 종합감정..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수년간 수도하여 주역의 영의 힘을 받아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운명을 판단하다 보니 너무나 신기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암사내에 운명감정실을 내어 여러분의 걱정 제반사를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운명을 바꿀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240-1(동문고등학교정문 앞) 우암사 TEL 053)792-3392, 053)794-1008 / FAX 053)794-1002

저자와 함께하는 책, 그 너머 이야기

“‘편하게 살자’ 안의 탐욕이 화 불러”

강 사 : 이일훈 (건축스튜디오 ‘후리’ 대표)
일 시 : 2009년 1월 20일
장 소 : 마포 다보빌딩 대강당
주 최 : (재)대한불교진흥원 월간 ‘불교문화’
주 제 : 더 깊은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일훈 건축가는 ‘채 나눔’으로 유명하다. 채를 나눠 동선을 길게 늘인 그의 건축 설계는 ‘동선을 짧게 할수록 좋다’는 기존 상념에 위배된다. 그의 느리게, 그리고 조금 불편하게는 ‘탄현재’ ‘궁리채’ ‘작은 큰집’ ‘가가불이’ 등 주거건축에 녹아있다. ‘도피안사 향적당’ 등 불교건축활동도 활발히 펼친 이일훈씨. 그는 1월 20일 월간 〈불교문화〉 화요강좌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건축에 대해 말했다. 빠르고 편리함을 강조하는 현대문명 속에서 늘임의 미학을 외치는 그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자.



이일훈 약력

1978년 한양대 건축과 졸업.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역임.
건축스튜디오 ‘후리’ 대표.
서울시 건축상, 크리악어워드 등 다수 수상.

#세상에서 사라진 것 다시 지어보자

“정자가 사람이 만든 그늘이라면, 나무는 자연이 만든 정자다. 나무는 스스로 풍경을 만들어낸다. 사람의 손길이 거치지 않으면, 정자는 폐허가 되지만 나무는 더욱 더 나무다워진다. 건축적 잣대로만 정자를 보려하면, 건축의 어둠에 가려 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집에 가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모형속을 걷다〉 ‘정자와 나무의 궁합’에서)

우리가 만든 집은 땅위에 얹혀 있습니다. 100~200년 간다면 마치 나무와 같죠. 나무는 바람이 불 때 흔들리고, 낙엽을 떨구며, 자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돼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나무와 집은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집을 생각하면 나무가 떠오르고, 나무를 보면 집이 떠오릅니다. 건축가로서 일종의 직업병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편견과 고집이 가득한 건축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연을 맺겠습니다.

어느날 작업실을 옮겨쓸 때입니다. 10여 년 동안 쓰던 공간이기 때문에 살림 곳곳에 많은 것들이 수납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작업했던 수많은 모형부터 정리해야할 입장에 처했습니다. 치울 엄두도 못내던 차에 ‘모형을 부숴 버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 넘게 간직한 모형을 부수며 그 흔적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남겼습니다. 부서진 모형들과 남겨진 필름을 보며, ‘이제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들을 생각으로 다시 지어보자’해서 나온 것이 〈모형속을 걷다〉입니다.

‘채 나눔’은 조상들의 삶의 방식

저는 ‘채 나눔’을 주장하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채 나눔’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것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구현하고 덧붙였을 뿐입니다. 저는 ‘채 나눔’ 삶을 현대적으로 적용함에 세가지 방법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불편하게 살자’입니다. 건축을 비롯한 우리의 삶은 불편해야 합니다. 몇 대를 가도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해답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자식들과 손자, 그 이후 자손들이 넉넉한 환경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까지 모두 까먹고, 파먹고, 태워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과 손자들을 위한 길은 ‘불편함’. 간단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 중 하나인 집을 짓는 근저로 ‘불편하게 살자’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두번째는 ‘밖에서 살자’입니다. 집의 공간을 구성할 때 몽땅 내부만 있는 방식으로 건축하지말고, 구석구석 스펀지처럼 외부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가 개입된 삶을 살자는 것이죠.

‘밖에 살자’의 반대는 ‘안에 살자’. 이것이 더 심해지만 ‘안에만 살자’가 됩니다. 근대건축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내부지향적 공간을 만드는데 몰두해왔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강 산업의 발달로 인한 100층 200층 규모의 고층건물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이 내부지향적 공간으로 이뤄져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거대한 내부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연을 그 내부 안에 담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외부가 그리우니 바깥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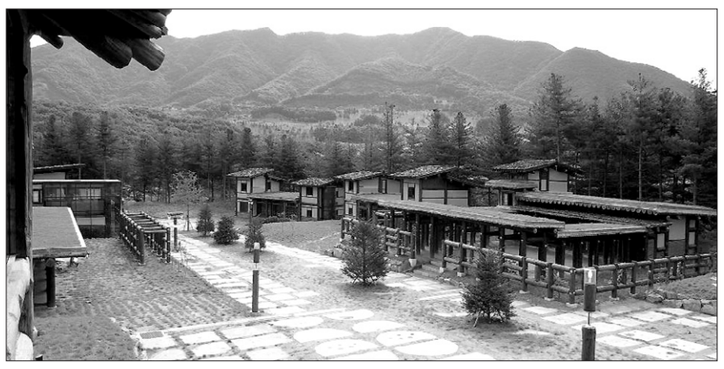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집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사무건물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올라옵니다. 한번도 내부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외부로 놀러 나가자고 합니다.

내부지향적 살림의 극단적인 예가 김치 냉장고입니다. 삶은 바꿔도 먹거리를 바꾸기는 어려우니 화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쉬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치 하나 시원히 먹기 위해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태우는 겁니다.

김치를 밖에 놓으면 시원합니다.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밖은 여가와 유흥의 공간이 아닌, 삶과 살림의 공간이 돼야 합니다. 1평이라도 외부공간을 늘리자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건축철학입니다.

세번째는 ‘늘려 살자’입니다. 혹자는 ‘느리게’로 오해하지만 ‘길게 살자’입니다. 현대 건축의 가장 원칙적인 불문율은 ‘동선은 짧을수록 좋다’입니다. 그 예로 ‘엘리베이터에서 모든 방이 가까운 것이 났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고층건물을 만들 때는 맞지만 절대 원칙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은 늘일 수 있는 것도 줄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주거공간에서 동선이 늘어봐야 얼마만큼 늘까요. 화장실 갈 때 1박2일 걸리겠습니까. 다만 몇 걸음을 더 걸을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비만과 운동부족, 게으름을 탓하며 헬스 및 다이어트 등을 일부러 찾아하면서 정작 삶의 방식은 편리함만을 추구합니다. ‘편하게 살자’ 안의 탐욕이 모든 화를 부릅니다.



이일훈 作 ‘우리 안의 미래 연수원’.

‘불편하게’ ‘밖에서’ ‘늘려’ 사는 것이 ‘채 나눔’ 건축철학
경제 · 미적 요소 결합된 건축은 생활 담아내는 것이 중요

#작가에게 직접 묻다

–건축가는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의 세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편성의 측면에서 건축과 건축가는 무엇입니까?

건축은 의식주에서 주(住)에 해당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에 비유하자면, 매일 밥을 하는 사람은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실 매일 하는 제일 중요한 요리임에도 요란하고, 화려하게 무언가 하는 것을 요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건축으로 돌아오면, 화려하고 거창한 것만이 건축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방 한 칸, 작은 공간 하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바로 건축이죠.

건축가는 전문성을 요하지만 보편성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편성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건축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방법 맞추는 설법, 즉 대기설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설법 자체가 특수한 것은 아니라 방편이 특수한 것입니다. 상황의 특수성보다 본질적인 보편적 가치가 상위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계한 건축물들이 예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얘기하시면서 초기 건축 작품들은 각이 살아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스텐레스로 만들어진 구는 완벽한 구의 입체지만 차가워 보이고, 스펀지로 만든 사각형이 부드러워 보이듯이, 형태가 무엇을 제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품들이 직선 구성된 이유는 주재료인 나무기둥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초가집은 이엉을 써서 둥글게 생겼습니다. 콘크리트는 각지게 네모나죠. 그 이면에는 물의 하중을 견디고, 재료와 기술이 연계된 고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철근, 나무로 둥근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디자인 욕구가 너무 반영된 인위적 건축입니다. 건축은 경제적 요소와 미적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일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조화시켜 생활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형속을 걷다〉는 제 생각의 일부입니다. 저는 제 후배들이나 선배 건축가들이 이런 책을 쓸 필요조차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게 살고, 밖에 살고, 늘려 삽시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교와 문화’ 강좌에서 저자와 책에 대해 논하는 독자들.

효사 육임 각 「활용서」 · 「CD프로그램」 · 「육임강론」 완결 · 최종판 출시 · 교환 안내

– 수 백 권 (數 百 卷) 의 일 반 역 서 (易 書) 들 과 비 교 될 활 인 서 (活 人 書) 가 아 닙 니 다 –

“저는 금번 적중도 · 효과성 · 간편 · 속도성이 보장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활인천역자용 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을 그동안의 꾸준한 증산진화(增刪進化)끝에 드디어 名品으로 완결시켰습니다.
또한 이전(以前 : 2008년 8월 기준)의 제 모든 저술 육임 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을 가격 고 · 저에 불문하고 아래의 “책”과 “CD프로그램”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복자 효사 –

– 고도의 적중도와 효과성이 담보된 임상 실기 · 활용서
曉史六壬刪策 최종판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출시중)

– 원 터치 기능으로 기선제압이 제고된 활용 CD 프로그램
曉史活人天役集 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출시중)

– 오술지중제왕(五術之中帝王)육임 종합학습 · 활용 제8판본
曉史六壬講論集 최종판
정가 45만원 · 교환 35만원 (출시중)

– 육임사주 학습 · 활용편으로 사주학의 신차원을 개척시킨
曉史六壬四柱鑑定法
정가 20만원 · 교환불가 · 학습 · 활용서로 구분됨 (출시중)

■ 권수선택 : 1권짜리(60갑자 60일치 영구사용 합본) ■ 6권짜리(60갑자 각 순별 10일치씩 영구사용 분권) ■ 60권짜리(60갑자 각일별 영구사용 분권) ■ 크기선택 : A5(휴대용) A4(좌정용) A3(노안용) ■ CD장착 PC : 집무실 · 숙소 · 노트북

◎ 위 「효사육임산책」 최종판 각일 각 방문 시간별 구성내용

1. **왜 왔는가?**를 온 시간 밑에 일일히 써 놨습니다.
2. **어떤 정황(情況)인가?**도 각 시간마다 일일히 써 놨습니다.
3. **일 방해하는 작사귀(作事鬼), 병 일으킨 병귀(病鬼), 동티나게 한 부정빌미(不正邪祟), 가쇠(家衰)의 산소탈(山所脫) 중 어떤 침범을 받고 있는가?**도 일일이 써놨습니다.
4. **이 귀신 · 부정 · 산소탈의 침해(侵害)를 수법(修法: 천도 · 구병시식 · 고사 · 굿 · 부적 · 양법 등)으로 해소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효험이 있게 되는가? 기도나 치성 일수를 몇일로 해야 영험할까?** 등등까지 써놨습니다.
5. **귀신의 종 · 명(種 · 名)은 무엇이고, 부정빌미 이유는 무엇이며, 산소탈은 누구의 어디 있는 묘지이고, 묘지 물형좌 · 묘지앞 경관 · 좌향 · 묘지속은 어떤 상태인가?**도 세세히 써놨습니다.
6. 효사 **초사(初辭)**와 **직지요결(直指要訣)**을 한면의 상하(上下)로 배치, **내방자 심중을 정곡으로 찌를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히 백미 올시다.
7. **신변 · 가정 · 사업 · 직장 · 대인 · 남녀관계의 비밀한 사안까지 순차적으로 지적**해 놓고 **그 개선 방침도 제시** 해 놨습니다.
8. 내방자 각인의 **띠별 운세**(귀인길사자 · 직록길사자 · 승진 · 상매길사자 · 병자 · 관재자 · 빈궁자 · 불성자 · 산기자 · 본인재액 · 육친재액 등)를 **일일히 기입해 놓았습니다.**
9. 승부사승좌(勝坐向) · 천성선악인 · 계획사성부(成否)를 방문시간마다 한 눈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10. **항목**(項目)별 문답(問答) **단정**(斷定)을, 모방 · 공명 · 구재 · 시험취직 · 가정 · 혼인 · 출산 · 이동 · 소송 · 질병 · 여행 · 가출 · 소식 · 가격 · 투자 · 도난 · 채용 · 경작 · 기후사 등 22가지로 분류시켜 달아 놓았습니다.
11. 「**효사육임1년신수비결**」을 보정하여 매월의 길흉사는 물론 내 · 외변수 사건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12. 최신간행된 **효사육임사주감정법**을 재정련시켜 명운(命運)과 대 · 세 · 월 · 일운이 한눈에 판별 되도록 구성시켰고, 당해운에 있게 되는 질병종류와 육친(부모 · 형제 · 처 · 자식)의 길흉 해당사를 밝혀 놓았습니다. 가히 정수(精髓)입니다.
13. 「**육임궁합법**」을 적용, 내방자의 배우자 운세 팔자를 한눈에 살피게 했고 평생관계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14. **내방자가 온, 또는 전화한 그 해당 시간에 의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적중도에 희열**하는 육임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매우 쉽고도 허실없이 구성시켜 놨습니다.

◎ 위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완결판에 장착된 내용 명세

육임산책 CD(육임래정비법시리즈)	(분개판매)	250만원
육임대계전서 CD(휴대용개편)	(분개판매)	200만원
육임1년신수비결 CD(개정증보)	(분개판매)	100만원
육임길흉성부단정 CD(최신판)	(분개판매)	5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CD (최신판)	(분개판매)	50만원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 CD(최신판)	(분개판매)	50만원
효사숙사주 CD	(분개판매)	70만원
성명학 CD	(분개판매)	50만원
매화역수 CD	(분개판매)	30만원
부적보감 CD	(분개판매)	30만원
동의보감 CD	(분개판매)	10만원
월영도 CD	(분개판매)	30만원

◎ 위 외 권장 활용서의 주문도 받습니다.

• 오행제례의식집(최신판) 1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법 12만원
• 도사에게물어봐(최신판) 5만원 • 육임내정비법(개정판) 35만원

◎ 보고 판단만하게 육임학에서나 가능한 육임 사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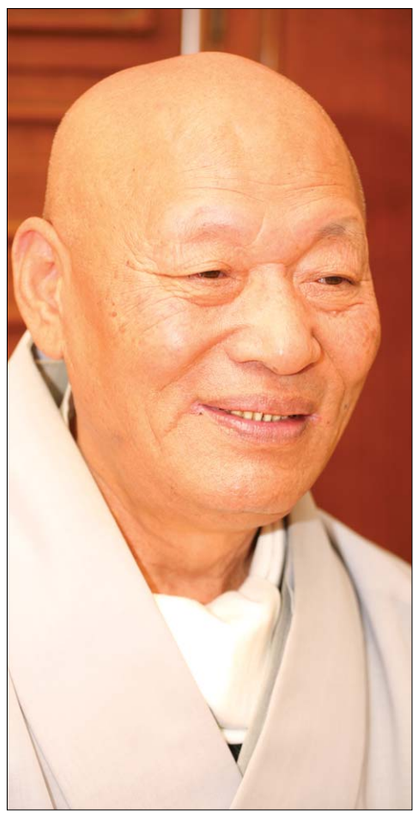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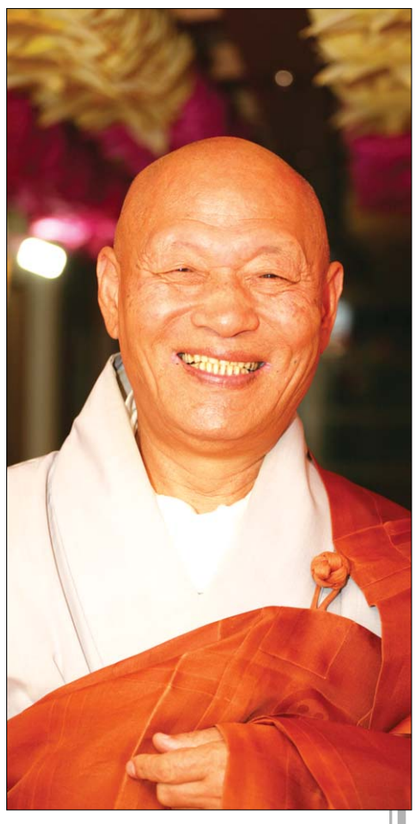
사주학의 역사는 깊다.
인간의 천부적 종성(種性)을 파악하고 향방(向方)의 길흉화복을 예지하는데 있어 매우 탁월한 술 · 학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사주학의 선호도는 그동안 다른 오행술과는 월등한 차이를 두어왔다. 사계의 많은 선 · 후학들이 사주학을 했고 또 가장 먼저 입문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조금만 사려해보면 사주학의 한계를 짚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내밀한 문제들에 대한 간결한 판단이 곤란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행술학이란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게 되는 현상」을 예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묻고, 필요로 하는 것들, 사람들이 과거에 겪었고,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바, 사주학은 인간에게 내재된 개체 존재로서의 품수성질이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한 변별이 가능하나 사람들이 당면한 사건, 사안들의 성부단정에는 미흡함을 면하지 못한다.
특히, 현대인들의 삶은 「속도성」의 가치가 매우 커져서 길흉 · 성부 · 진퇴에 관한 좀더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사주학의 이러한 제한성을 어떻게 극복시키고 정확한 속도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 즉 시대성에 입각한 일건적(一件的) 판단들에는 사주보다 앞선 역사를 가진 육임학의 기공과 천장법 적용으로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다. 사주는 일생적(一生的) 판단이 장점이요, 왈가왈부(曰可曰否)가 단점이고, 반면 육임은 일건적(一件的) 판단과 정형화가 장점이기 때문이다. 여기, 사주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무리 없는 육임법칙에 의한 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육임가나 사주가나 할 것 없이 한층 심층적이고도 구체적인 길흉 · 변수의 변별이 가능하도록 하고져 한다. 육임가는 한 수 더, 사주가는 크나큰 진화가 꾀해질 것이다...

■ 이상 주문 즉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육임학회 서울지역 02-833-8683 담당 : 정용철 (우리1002-037-559214 정용철) / 부 산 지 역 051-908-8683 담당 : 진면경 (농협 121059-56-023257 진민경)

“생명 주는 말·덕 세우는 말하면 재앙없다”

효산 스님(효산선원장)

“도인의 길 가겠다” 어머니와 약속하고 13세에 출가
간화선 공부 간절히하면 자기 에너지 100% 쓸 수있어

“나는 세상에 제일 훌륭한 분이 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둘 중 한 사람은 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누가 도인이 되겠느냐?”

15살, 13살의 두 아들을 앉혀 놓고 어머니는 물었다. 두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재차 큰 아들에게 도인의 길을 가겠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흔들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더니 그 자리에서 도인의 길을 가겠다고 답했다.

“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머리 깎고 스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여 도인이 되어야 한다. 자신 있느냐?”

13살의 어린 소년은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고 어머니와 약조를 했다.

어머니는 그 때부터 둘째 아들을 도인의 길로 보내기 위하여 날밤을 자지 않고 준비를 하였다. 무명천을 회색으로 물들여서 둘째 아들의 몸에 맞도록 재단하고 마름질했다. 아들 하나가 출가를 하여 도인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내장사 스님에게 연락하여 미리 출가할 날을 받아두었다가 그날 아들을 앞세우고 절로 갔다.

어머니는 멀리서 가까이서 한 달에 한 번씩 승복을 깨끗이 손질하여 절로 올려 보냈고, 큰절에서 살아야 배울 것이 있다면서 혹 아들이 작은 암자에서 살면서 출가자로서 느슨해 질 것을 염려했다. 그리고 아들이 올곧게 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효산 스님은 출가의 길로 이끌어 주신 어머니가 고맙기만 하다면서 ‘지금도 과연 어머니가 원을 세우신 대로 바른 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을 했다.

13살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출가를 하였기에 종교에 대한 궁금증은 너무나 많았다.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기에 혼자서 책을 읽고 공부했다. 15세부터 2년에 걸쳐 참종교란 무엇인지 천주교 · 개신교 · 원불교 · 유교 등 모든 종교를 두루 섭렵했다. 치열한 성찰 끝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간화선법만이 최상의 법임을 깨달았다. 가장 수승한 길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오로지 그 길을 향하여 걸었다. 그 후부터 해인사 · 범어사 · 통도사 등 제방선원을 두루 거치면서 참구정진 했다. 그렇게 정진한지 40여년 만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였기에 후학들에게 지침이 되는 것을 제시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효산 선원을 열고 <수행지침서>를 펴내어 법보시를 하고 있다.

“참선을 하면서 숱한 경계와 마주칠 때마다 선어록을 보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갔어요. 그때 목적지와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정확한 지침서가 있다면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사량분별심(思量分別心)을 쉬어야 하며, 어떻게 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깨침에 이를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했지요. 선을 생활화하려면 순간의 깨달음을 강조하기 이전에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론은 선(禪)이 신비의 영역에서 벗어나 일상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다. 수행에 앞서 몸의 원리, 말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강조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효산 스님의 수행방법론 중 하나이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편의상 만든 것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말에 빠져 그것을 더욱 더 형상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종내는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말이란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어야지 낱말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감정이 실리면 말의 본뜻은 사라지고 수많은 오해만 만들어 냅니다.”

효산 스님은 ‘말의 원리를 안다면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말로 칭찬을 하고 나를 추켜 세워도 그저 미소만 띄울 뿐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악담을 하고 나를 모략(謀略)할지라도 말의 원리를 안다면 미소를 띠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릴지언정 상대방과 괜히 서로 나쁜 소리나 비난을 주고받으며 싸운다든가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말의 원리를 알고 그때그때 택할 건 택하고 버릴 건 버리면 열 번 어려움이 올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

“만약 이제까지 말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효과적인 말의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은 업도 갚을 뿐더러 다음 생에 몸 받아가도 화(禍)는 없을 것입니다.”

효산 스님은 산중불교를 벗어나 부산 연지동의 한 신아파트 502호를 수행도량으로 꾸며 선원을 열었다. 아파트를 수행도량으로 삼은 것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하게 오고갈 수 있다는 점과 선원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이기 때문이란다. 효산선원에서는 새벽 3~5시, 오전 8~10시, 오후 2~4시 이렇게 하루 세 번 정진을 하고 있다. 또 토요일에는 밤 9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 수행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천도재 · 불공 · 기도 등 그 어떤 것도 배제한 채 오로지 참선지도만 하고 있다. 축원문 한 장 없이 구십 평이나 되는 선원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궁금했다.

“전 40년 넘게 선방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절약하는 데는 자신 있어요. 겨울에 추우면 옷 많이 입으면 되고… 평생을 선원에서 수행한 덕인지 아직까지 아파서 병원간 적은 없어요. 이것도 다 부처님 가피라 생각해요.”

효산 스님의 은사이신 고암 스님은 종정을 세 번이나 지내셨으며, 평생을 무소유로 살다 가신 분이다. 아마도 은사스님의 철저한 무소유를 온 몸으로 체득하셨나 보다. 효산 스님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불자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어떤 것이 정법인지를 알 수 있다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기를 권하였다.

스님은 간화선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 마음의 힘과 말의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음은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일체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다 이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허공계이고 이 허공계는 허공 · 바람 · 전파(電波) ·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허공의 힘은 전 우주를 인력(引力)에 어긋남이 없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바람의 힘은 원소(元素)로 돌아가게도 만들며 다시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파는 1초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단숨에 달리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생명체의 생각함과 움직임을 기록하기도 해요. 그러니 누가 보지 않는다고 남을 속인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파의 기록에 비추면 명경지수(明鏡止水)에 달 그림자 비춘 것과도 같아요.”

공기 또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은 산소를 섭취하여 탄소를 내뿜고 식물은 동물이 내뿜은 탄소를 취하여 산소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상호유기적(相互有機的)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이로움을 주는 것이 공기인데 자리이타(自利利他)는 바로 공기에서 배워야 한단다.

“허공계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가 사람이며 사람이 곧 근원이고 으뜸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을 알고 쓴다면 전 우주와 일체 물질계를 포함하는 허공계를 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힘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 힘을 찾아 쓰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장애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기위해 가르침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이것을 설법하셨고, 그 후로도 많은 도인들이 그것을 깨우쳐 주기위해 애를 썼어요. 불교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효산 스님은 삼처전심(三處傳心)을 간화선의 핵심이라 한다. 이심전심의 법을 가섭존자에게 전했던 부처님의 마음을 간화선의 뿌리로 보며 선종에서는 삼처전심을 교외별전의 유일한 근거라 하여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경전 밖에 따로 문자를 전하지 않는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의 가르침은 중도(中道) · 연기(緣起)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선(禪)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수행이며, 그 어떤 수행법 보다 가장 빠르게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마음 본자리를 밝히는 길입니다.”

삼처전심이란 첫째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니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는 영산회상거염화(靈山會上擧拈花)이고, 둘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급고독원에서 대중을 위하여 설법할 때 마하가섭이 뒤늦게 당도하자 부처님께서 당신이 앉으셨던 자리 일부를 내주어 가섭을 그 자리에 앉게 했다는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이다. 셋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금성농협에서 만든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 조 : 금성농협 문 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복과 죄 갖고 왔다 가는게 인생

선지식을 찾아서 효산

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입관(入棺)된 뒤 멀리서 온 가섭존자가 이를 슬퍼하며 울자 부처님께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놓으며 광명을 비추었다는 니련하반곽시쌍부(泥連河畔槨示雙趺)이다. 이 세 가지 일화가 조사선의 교외별전(敎外別傳)이 되었다고 한다. 효산 스님은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세존이 삼처전심한 것이 선지(禪旨)가 되고, 일대교설이 교문(敎門)이 되었다고 선언하였음"을 강조했다. 효산 스님께 공부법을 물으면 누구에게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가르쳐 주신다.

"간절한 의심을 잡아 몰아붙여 나아가다 조금만 살짝 옆으로 빠져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침삼매(昏沈三昧)로 들어가 버립니다. 남이 보면 분명 자고 있는데 스스로는 자고 있는 줄을 모르며 선정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선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 절대 졸지 않도록 수마로부터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엔 조금씩 졸다가 나중엔 그냥 통잠을 자면서도 공부는 잘한다고 하거든…"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다보면 동정일여(動靜一如)가 된단다. 앉으나 서나 가나 누우나 깨어 있을 때나 잠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의정이 끊어짐이 없이 화두에 몰입하고 있는 동정일여가 되면 그 다음은 깊은 잠에서도 의정을 떠나지 않는 숙면일여(熟眠一如)의 경지가 된다. 숙면일여를 오매일여(寤寐一如)라고도 하는데, 깨어 있거나 잠에 빠져있거나 항시 삼매가 유지 된다는 뜻이다. 이 오매일여의 단계를 불퇴전(不退轉)의 경지라고 하는데, 다시는 보통사람의 삶으로 퇴전되지 않는다는 뜻이란다.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성성적적(惺惺寂寂)의 단계인데,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고요함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 공부를 해 보면 잘 안되어도 그 의심을 잡아서 놓치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경계가 훌쩍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공부했기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나 하고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조바심을 내지 말고 진득하게 공부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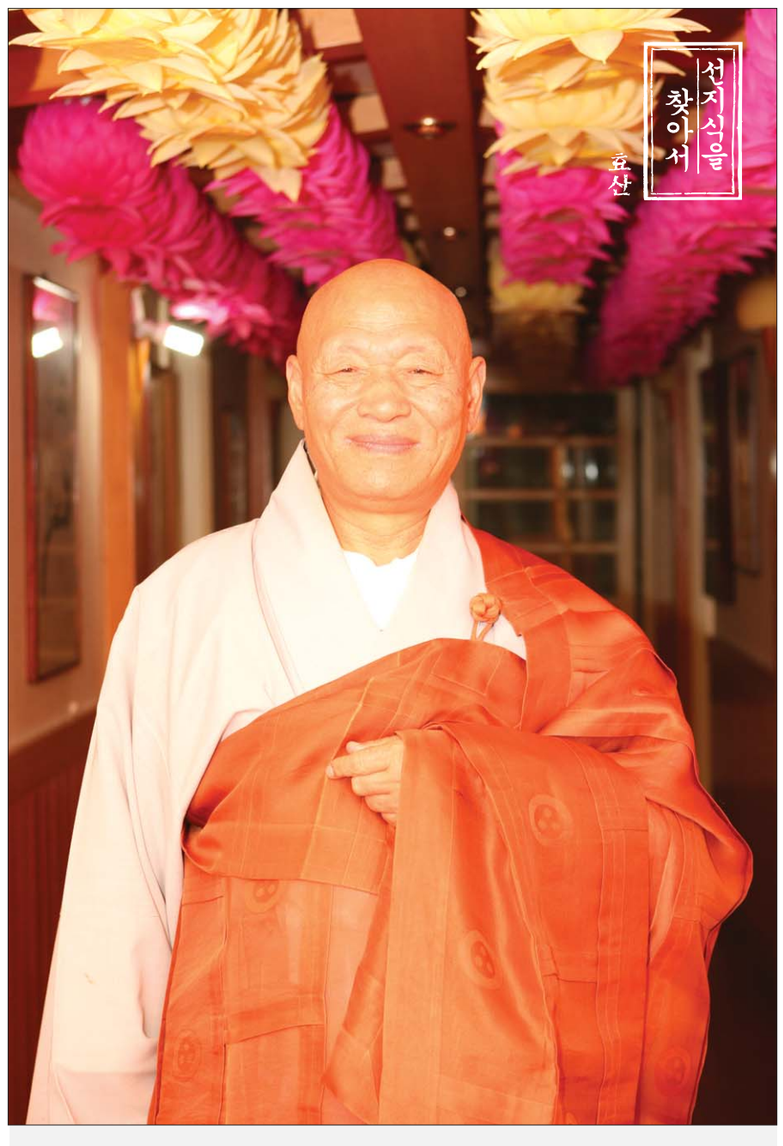
간화선 공부를 간절히 하다보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100% 내어 쓰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단다. 이 길이 가장 수승하지만 그 다음 차선은 기도를 하는 것이란다.

"진정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전 우주와 허공계에 가득 찬 불보살의 가피(加被)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일체 어려움을 다 막아버리고 좋은 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반드시 전생 인(因)과 현생 연(緣)이 닿은 것으로 쉽게 물리칠 수는 없어요. 금생에 생기는 어려움을 피할 길은 없으나 차단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복 달라고 구걸하면서 살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요. 화두참선을 통해서 얻는 복과 능력은 크지만 기도를 통해 이루는 복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화두참선을 해야 합니다."

화두 참선을 통해서 얻는 복은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무루의 복이지만, 기도를 통해 얻은 물질적인 복은 유한한 것임을 알아야 한단다. 효산 스님은 금덩이를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들이 자꾸 은덩이를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기도 공덕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올 때도 복과 죄를 가지고 왔고 갈 때도 반드시 복과 죄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세상 끝내고 돌아갈 때는 죄보다는 복을 훨씬 많이 지고 가야지요."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효산 스님은 1934년 전남 순창에서 출생하여 13세 때 동진출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득도. 17세부터 통도사, 해인사, 불국사 등 40년 넘게 제방선원에서 수행. 2002년 부산 연지동에 효산선원을 개원. 지금은 효산선원에 주석.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9〉 범룡 대선사

2005년 9월, 금강선원 식구 40여 명은 차 한 대를 대절하여 동화사 성지순례를 갔다. 모든 사람들이 대웅전 약사부처님 앞으로 가는데, 나는 왠지 비로암에 들르고 싶어 갔더니 뜻밖에 오대산에서 한번 뵈온 적이 있는 범룡 큰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셨다. 시봉스님이 말했다.

"오랫동안 요양 중에 계셔서 사람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옛날 오대산에서 미감을 하던 초연 수좌가 왔다고 하면 알 것입니다."

하였더니 반갑게 맞아주셨다. 92세의 나이로 법랍이 72세가 된데다 청정한 계율로 평생을 살아오시다 보니 기력이 쇠하셨다. 그래서 '범룡 대선사의 구도행각'을 백일 추모집으로 엮겠다 하여 <중생성불론>이란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낸 일이 있다.

스님은 1914년 평남 맹산에서 태어나 193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스님이 되고, 오대산 상원사 한암 스님 회상에서 비구계를 받고, 상원사 수덕사 유점사 범어사 등 여러 선방을 거치면서 수행 정진하다가, 1980년 동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1994년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조실로 계셨다. 그런데 말년에 동화사 비로전에서 만나뵙게 되었으니 만가지 일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 같았다.



선만 능한 것 같으나 말씀 터지면 모두 '경' 행은 '계율'

진해 있었다.

"오래 살다보니 옛 사람을 다 만나 보게 되는구먼."

"그때 스님께서 수타사에서 가져오신 인삼을 한 대접 주시어, 고구마 먹듯 한 그릇을 다 먹어치운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 그때가 좋았지. 종종 신문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자네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가물가물해."

하시며, 오대산에서 쓰셨다는 <보조국사 절요> 사본 1권을 주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 12월 15일 열반에 드시니 종단에서는 전국 수좌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강원도 영월 서봉사 주지 배부성 스님께서 1956년부터 수타사에서 잣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인삼을 재배하며 선농생활을 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선재동자 구도행각'을 백일 추모집으로 엮겠다 하여 <중생성불론>이란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낸 일이 있다.

스님은 1914년 평남 맹산에서 태어나 193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스님이 되고, 오대산 상원사 한암 스님 회상에서 비구계를 받고, 상원사 수덕사 유점사 범어사 등 여러 선방을 거치면서 수행 정진하다가, 1980년 동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1994년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조실로 계셨다. 그런데 말년에 동화사 비로전에서 만나뵙게 되었으니 만가지 일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 같았다.

춘추가 90이 넘으셨으니 다소 살집은 빠졌으나 팔자(八字) 눈썹에 가무스레한 눈은 옛 부처님 미소 그대로다. 법상에 올라가면 가사자락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번번이 있었으나 주장자를 쥔 손은 다이아몬드 보다 더 강했다.

"법계는 원적(圓寂)하여 처음과 끝이 없고

법신은 청정하여 참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원융한 법성(法性)은 이름과 모양 없으나

항상 훤출하게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다음 구절은 가물가물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서봉사 정신스님께서 기억을 하여 여기 다시 기록한다.

"단지 중생이 어두워 제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므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적멸도량에서 일어나

보리도량에 이르러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모두가 여래의 지혜덕상 갖추고 있네."

이것이 범룡 스님의 <화엄경> 법문이다. 원래 선사는 선에만 능한 것 같으나 한 생각 터지면 그 말씀이 모두 경이 되고, 그 행이 모두 계율이 된다. 그래서 스님은 경·율·논·선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율사가 선사요, 경사가 율사요, 논사도 논사이기 때문이다. 선이 없이 어떻게 경·율·논이 경·율·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범룡 스님은 평상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고 선사가 오면 선사에게 법문을 시키고, 경사가 오면 경사에게 법문을 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스님의 행이 그대로 법률이 되어 나중에 조계종 율원의 종사가 되기도 하였다.

스님 돌아가신 뒤 정신 스님이 서봉사 숲속에 하얀 탑을 세우니 마치 그 모습이 학과 같았다. 우리는 다같이 재를 모시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그림자 있는 탑 속에

화엄의 사리를 묻어버린 대선사여,

오늘도 당신은 능엄삼매 속에서

선재동자의 구법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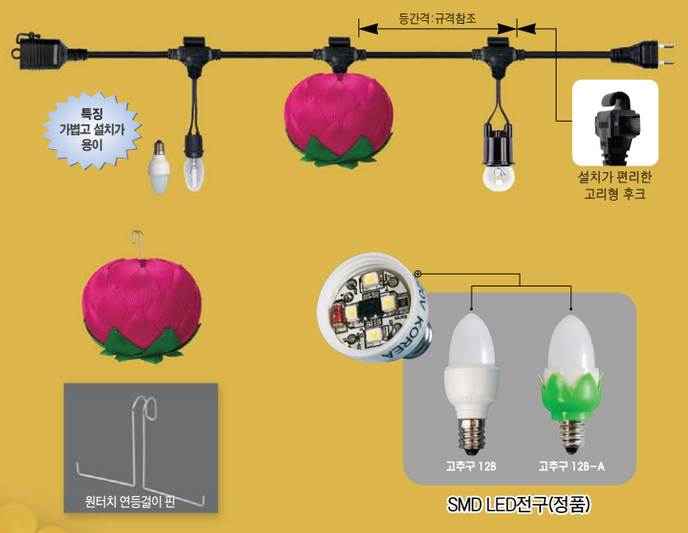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⑤

육기(六氣)사용 관 수행으로 모든 병 대치

次明觀治病者 有師言 但觀心想 用六種氣治病者 卽是觀能治病 何等六種氣 一吹 二呼 三嘻 四呵 五噓 六呬 此六種息 皆於唇口之中 想心方便 轉側而作 綿徼而用 頌曰

心配屬呵腎屬吹 脾呼肺呬聖皆知
肝藏熱來噓字至 三焦壅處但言嘻

다음으로 관수행으로 모든 병을 대치하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앞에서 밝힌 지수행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한결같지 않았듯이 관수행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 역시 한량없이 많다.

어떤 스님은 "오로지 마음의 상상을 관찰하여 육기(六氣)로서 치료한다면 능히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관수행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떤 것이 여섯 종류의 호흡 기운인가.

첫 번째 취(吹)는 불을 일으킬 때처럼 후후 부는 호흡법이고, 두 번째 호(呼)는 더운 기운을 불어내는 것처럼 호호하는 호흡법이고, 세 번째 희(嘻)는 화기로운 호흡법이고, 네 번째 가(呵)는 꾸짖듯이 내는 호흡법이고, 다섯 번째 허(噓)는 탄식하듯 내쉼으로 하는 호흡법이고, 여섯 번째 희(呬)는 힘든 일을 했을 때 후하고 숨을 몰아쉬는 호흡법이다.

이 여섯 가지 기운은 단지 호흡에 소리를 함께 하여 기운을 내뱉는 것으로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오장을 다스리는 것은 치아와 입술과 혀를 조정해서 기운을 불어내야 하는데 이는 가상관(假想觀), 즉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상황에 따라 호흡을 굴리면서 하는 것이므로 기운과 호흡을 거칠게 드러내지 말고 면면밀밀하고 미세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알아야 할 것은 이 여섯 가지 호흡 기운은 세력이 가장 광대하여 사대 오장의 일체 중병을 두루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수행을 할 때 몸이 차다고 느껴지면 후후 부는 호흡을 해야 하며, 몸에 열이 난다고 느껴지면 내쉬는 호흡을 해야 하며, 사지마디마디가 매우 아프면 화기로운 호흡을 해야만 한다. 이것만 사용해도 바람을 다스릴 수 있다.

또 마음이 번거롭고 상기가 되면 몸속에 더운 기운을 불어내는 호흡을 하고, 담이 응고되어 있으면 입김을 천천히 불어내야 하고, 신체가 피로하면 휴식하는 호흡을 사용해야만 한다.

가령 육기로 오장을 치료할 경우 더운 기운을 불어내는 호흡은 간장을 다스리고, 입김을 천천히 불어내는 호흡은 폐장을 다스리고, 후후 부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은 심장을 다스리고, 화기로운 호흡은 콩팥을 다스리고, 휴식하는 호흡은 비장을 다스린다.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내몸 상황에 따라 호흡 취 호흡법등 여섯가지 호흡기운으로 병 다스려

또 여섯 가지 호흡기운으로 하나의 장부를 동일하게 다스릴 수가 있다.

오장 가운데 하나의 장부가 냉증이 있으면 후후 부는 호흡을 해야 하고, 열이 있으면 내쉬는 호흡을 해야 하고, 통증이 있으면 화기로운 호흡을 해야 하고, 번거로움이 있으면 더운 기운을 불어내는 호흡을 해야 하고, 담이 있으면 입김을 천천히 불어내는 호흡을 해야 하고, 권태로움이 있으면 휴식하는 호흡을 사용해야만 한다.

하나의 장부를 이와 같이 치유할 수 있다면 나머지 네 개의 장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입으로 후 불어서 냉증을 제거하고, 코로 서서히 따뜻한 기운을 받아들여 편안하고 자세히 들어가야만 하며, 절대로 나아가고 들어오는 것이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여섯 가지 호흡기운을 사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게송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심장은 가(呵)호흡에 속하고
신장은 취(吹)호흡에 속하며
비장은 호(呼)호흡에 속하고
폐장은 희(呬)호흡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성인은 모두 안다네.
간장이 뜨거우면 입김을 천천히 불어내는
허(噓)호흡을 해야 하고
삼초(三焦)가 막힌 곳은 화기로운 희(嘻)호흡을 말할 뿐이네.

삼초란 초부(焦腑)를 말한다. 삼초는 물과 곡식이 통과하는 도로이며 몸의 기운이 시작하고 끝나는 곳이다.

황제경(黃帝經)에서는 삼초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위장의 입구아래 있는 상초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위장의 중완에 있는 중초는 물과 곡식을 썩히고 익히는 것을 위주로 하며, 방광위에 있는 하초는 물과 곡식을 내보내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처럼 상중하로 나누었기 때문에 삼초라고 말하고 육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초부라고도 호칭한다.

이와 같이 수행공부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처음 발심하는 자가 사용하는 방편이고 정수행법은 아니다.

有師言 若能善用觀想運作十二種息 能治衆患 一上息 二下息 三滿息 四焦息 五增長息 六滅壞息 七煖息 八冷息 九衝息 十持息 十一和息 十二補息

앞에서 여섯 가지 호흡기운으로 병을 다스리는 것은 병을 따라서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호흡으로 많은 병을 대치할 수 있음을 밝혔다.

호흡이란 콧구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육기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하지 않다.

대체로 호흡은 몸과 마음이 서로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면 나무에 불을 지필 때 나무와 불이 서로를 의지해서 연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데, 연기의 맑고 탁한 것을 바라보면 그 나무가 말랐는지 젖었는지 알 수 있듯이 호흡이 강한지 유연한지를 살피면 몸이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증험할 수 있다.

옛날 큰 스님은 "마음 속 상상으로 관 수행을 잘 사용하여 열두 종류의 호흡을 운행하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열두 가지 호흡이란 첫 번째는 상식(上息), 두 번째는 하식(下息), 세 번째는 만식(滿息), 네 번째는 초식(焦息), 다섯 번째는 증장식(增長息), 여섯 번째는 멸괴식(滅壞息), 칠곱 번째는 난식(煖息), 여덟 번째는 냉식(冷息), 아홉 번째는 충식(衝息), 열 번째는 지식(持息), 열한 번째는 화식(和息), 열두 번째는 보식(補息)을 말한다.

여기에서 열두 가지 호흡이란 내 마음으로 상상하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해탈론(解脫論)

삼법인(三法印) ①

제행무상(諸行無常) · 제법무아(諸法無我) · 열반적정(涅槃寂靜) 등 삼법인(三法印)은 불교의 중요한 교의(敎義)입니다. 삼법인은 불교에서 파악하고 정립한 우주만법의 실상으로써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세종류의 이성(理性)입니다. 여기에서 성(性)은 불변의 의미인데, 본래 갖추고 있는 이체(理體)는 시종 변역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理性)이라고 합니다.

인(印)은 증명 · 인증의 의미인데, 이 세종류의 도리를 의지해서 인증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불교 이론이 이 세가지 삼법인의 의리(義理)와 서로 하나의 이치로 부합하면 그것은 올바른 불법이고, 그와 반대되면 그 내용이 설사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의미를 끝까지 다하지 못한 불요의법(不了義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교의 도리는 이 세가지를 표준으로 의지하여 그 내용이 진실한 불법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를 법인(法印)이라고 합니다. 삼법인의 내용을 광의적인 측면에서 말해본다면 이는 세간 일체 환화(幻化)의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行)의 정의는 대화유행(大化流行), 즉 생멸변이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생멸변이야말로 세간제법의 진실한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와 생명계를 따로 논할 것 없이 모든 현상계는 찰나찰나 생멸변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계에서는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으로 변하고 생명계 역시 살아서 활동하던 육신이 끝내는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모두가 무상하게 생멸하기 때문에 제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제행(諸行)은 색심(色心), 즉 오온(五蘊) 모두의 생멸변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천류생멸하는 세간제법은 상주(常住)하는 성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변치 않는 실유(實有)의 성질도 없습니다. 무아(無我)에서 아(我)는 상대방과 나를 대칭하는 일인칭으로서의 아(我)가 아니라 그 자성에 있어 시종 변치 않는 실체를 지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무상(無常)은 일체사물엔 항구하게 실유하는 실체가 없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무아(無我)의 의미로서 무상과 무아는 그 표현된 언어만 다를 뿐 실제적 의미는 하나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 · 무아이기 때문에 우주 삼라만상은 찰나찰나 생멸변이를 거듭하면서 순간순간 공적무아의 이치로 귀결하는 것입니다. 앞서 '연생론'에서 세계의 일체는 인연이 화합하면 일어나고 인연이 분리하면 공적무아임을 설명함으로써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생들이 인연의 화합과 분리를 따라서 생사로 천류하는 실상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정리=張如舟

공생선원 봄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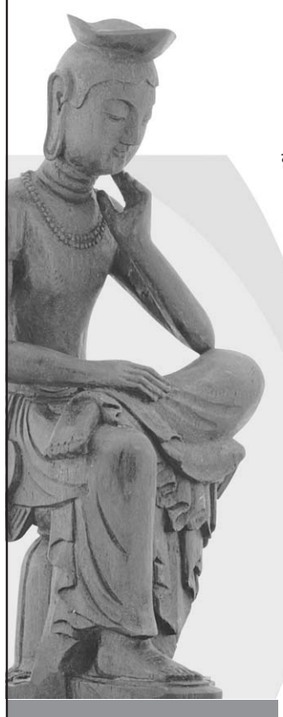


혜거큰스님께 듣는 능엄경
• 법 사 : 혜거큰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날 짜 : 3월 5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참선입문 (선문촬요) 참선반 (육조단경)
• 법 사 : 무각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 날 짜 : 3월 3일 참선반 / 3월4일 참선입문

※ 청년법회(금강경오가해) 매주 토요일 6시 / 일요가족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el 02)900-2448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9996-7700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역학 빙의 퇴마법전수
1.역학 실제감정위주로 1주일 비법전수
2.내용:명리학,주역,매화역수, 풍수지리,성명학
3.빙의 퇴마법 속성 비법전수
4.귀신들린병 퇴마 잘해드림
관음정사 도통스님
010-7443-3060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비구니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 여성분
전화 상담하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퇴마 심령 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각종불사 상담
단청, 탱화, 개금, 신축
저렴하게 불사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화공기능 보유자 1403호
경북 영주시 휴천2동 316-2번지
011-9387-151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평생 도반 경치좋고 아늑한 암자터를 소유하고 있는 오행,뜸,벌침,역학에 능한 병신생 비구승입니다
통나무 황토집을 지으려 합니다
조금만 협조하시고 함께 살 아가실보살님 인연 바랍니다
018-406-3073

행 자 모 집
스님 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 분
죽림선원
010-3047-0233

노후에 삶을 아름답게 함께하실 비구니스님 또는 공부하실분 모십니다
능력대로 시주금 받고 종신재
010-9367-5982

비어있는 사찰 관리하여 드립니다
비구입니다
011-850-0176

공양주 모십니다
(경험자 우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유명사찰
상담전화 033)455-5882
(야간 010-8879-8400)

포교혁명 영화투자
정략적인 불교탄압과 이교도들의 도전적인 훼불전도방식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혁명적인 포교 방식과 불자의 경제안정을 위해 스님이 불교영화를 감독 · 제작 · 보급하기로 하고, 불교영화기금을 조성합니다. 동참 후원 투자하실 불심 있는 분과의 인연을 희망합니다.
스님과의 인연, 핸드폰 010-2279-1130 / 이메일 (1085000@hanmail.net)
자금유치 상품홍보 필요한 불자사업가, 불자영화지망생, 후원 협력 투자관련 상담 환영 (가급적 이메일 상담요망)
- 포교영화 제작 배급을 위한 1,000억 원 조성 목표"그림, 도자기, 불교용품 판매전"을 협찬 후원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자원봉사 기부 후원해 주시는 분께는 선물, 세금감면, 감사패 증정, 포상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짧은 몇 마디는 어둠에서 헤매이는 당신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정신병 등 우울증, 조울증, 간질, 자폐, 약을 먹어도 약효가 없는 분,병명이 바뀌는 분, 병원에서 불치의 선고를 받으신 분, 까닭 없이 불안한 분, 오랜 격리 수용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 나무를 베고 목신의 고통을 받는 분 등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염불(명상)기도의 힘으로 치료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念佛子靈泉 당신에게 희망의 빛을 줄 것입니다.
010-3142-5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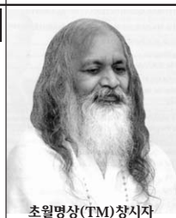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역 학 공 부
•사주초급 : 1/7(수) 18:30 •개강 : 정도형 선생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수료증 자격증
사주 전과정 45만원.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영화 대행 기획 제작 투자유치 대행
5천만 원으로 (투자 지원 협력을 통하여)
영화(10억 원 안팎 가치의 극장개봉상품)를 만들어드립니다.
핸드폰 010-2279-1130 / 이메일 (1085000@hanmail.net)
영화제작희망자, 후원 협력 투자관련 상담환영 (가능한 이메일 상담요망)
- 국산영화제작 활성화를 위한 1,000억 조성 목표
"그림, 도자기, 영화소품 판매전"을 후원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초월명상(TM)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초 월 명 상 (TM)
"깨어있는 휴식이 곧 깨달음이다" - 능엄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두뇌의 질서성, 집중력, 창의력 증가 / 노화역전 /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퇴치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한국초월명상센터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예약제)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학력, 연령 제한없음 •솔초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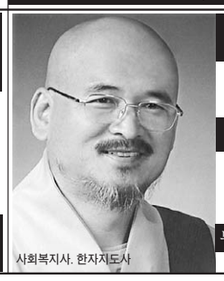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만 행 화

지압깔창 풍산동 99% • 가격 : 15,000원
발명특허원41435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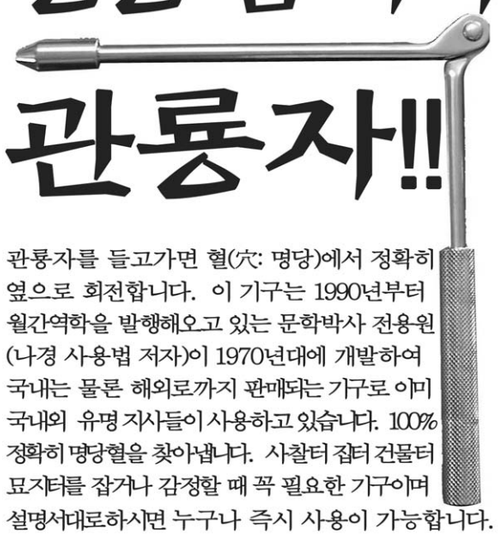
대방등 대집경 개인지도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夢"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불교불광종입종환영
종단이철학협회속협회소속업는스님법사보살철학사입종환영
신당법당명산에 빌어도 조상 질성 풍파로 가정 우환 고통받는분 상담환영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산신불공 · 지장불공 · 불명짓는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관음시식 · 구명시식법
누구라도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배울수 있는 각각 단권으로 출판된 불공책
스님 법사 보살 철학사 불자님께 필요한책 (농협 :150022-51-167171 한국불교불광종)
사무실관리 PC가능 40세 이상 여. 공양주 구함 숙식가능 급여 상담후 결정
053-561-4440, 011-9422-1885 주소 : 대구시서구내당 2,3동923-142


시 집 표 구 매 · 난 사군자 시 인

포항시 흥해읍
한 글 016-478-5545
한 문 054)262-1270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 (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의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 (상 · 하)"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명리 육임 육효 **정통역학** 관상 타로
■ 천문지리 인사명리의 진수인 실전역학강좌
■ 초 · 중 · 전문가 심화과정과 특별과정
■ 명리학은 주역과 기문을 접목한 전문가 과정
■ 육임학은 풍수를 접목한 전문가과정과 고급과정
■ 육효학은 원리이론과 실전위주 전문가 과정
■ 관상학은 수상학을 포함 초중급전문가 과정
■ 타로카드 이론과 실전 8주 완성 전문가 과정

공 개 강 의 (강좌소개)

과 목	일 자	요일	시 간	강 사
명 리	2/ 6	금	오후 2시	김도현 박사
	2/ 7	토		
	2/11	수		
	2/12	목		
	2/13	금		
관 상	2/10	화	오후 2시	노승우 교수
육 임	2/ 7	토	오후 2시	고주철 박사과정
	2/11	수		
육 효	2/12	목	오후 2시	하 림 선생
타로카드	2/13	금	오후 2시	손도화 선생

국제역학진흥원
www.yhak.co.kr 02)3676-4500
종로3가 1.3.5호선 5번출구 낙원상가 제일은행 옆 은성약국 3층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	●위치 : 부산	●위치 : 경기
●법당 : 20평	●법당 : 22평	●법당 : 30평
●요사 : 100평	●요사 : 15평	●요사 : 140평
●부지 : 700평	●부지 : 2,000평	●부지 : 2,500평
●가액 : 20억	●가액 : 4억5천만원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2700평
- 법당 약 50평,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뉴타운 개발지역
- 양도가 9억

지리산 천왕봉 밑 마당 넓은 절
- 대지총평수 : 2100평
- 법당30평, 요사채 방8칸
- 주지실 30평 전통기와 양식
- 따뜻한 지리산 자락(정남향)
-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양도가 : 6억 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 주방집기 및 가전제품 그대로 인수함

011-238-3990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에서 5분거리
- 아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산이 어우러진 영동에 최고의 위치, 상권을 가지고있고 영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차량통행이 많으며 사찰,토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입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 평당 85만원평수300평 주변에는 국유림 약 2만여평
- 사찰 임대 구합니다

010-9468-4235
010-4046-663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평수 : 산 1500평, 가액 : 평당 25만원 절터, 토굴, 기도처로써 명당 터입니다.
- 옛날 전설이 있고 도인도사 할아버지가 몇 천년전에 도 공부를 하셨던 자리로써 입구에 약수터가 있고 청정도량으로써 원래는 본인이 토굴을 여러 동 지어 지인 들과 함께 수행하던것이 자금에 차질이 생겨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본인 역시 독실한 불자로써 수행하시는 분께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010-5501-3150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부산대사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가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6억

051)862-0108
011-563-1545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의 중심지
- 4층건물중 3층
- 평수 : 54평
- 법당 1개, 방 4개 시설 특 A급
- 전세3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품비 확인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개인사정상

055)365-3562
010-2553-882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전철역 2~3분거리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 방2,주방,욕실,거실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 전세 : 2,000만원
- 위치 : 서울 은평구
- 전세 : 3,000만원
- 공부하는 비구니 스님에 한함

011-9128-2069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 2 구조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율하역 5분거리
- 평수 : 3층 건물중 2층 60평
- 법당1, 방3, 주방, 욕실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509-0670

토굴안내

- 위치 : 상주시 함창읍내 아담한 토굴
- 탱자울타리
- 방 2개,주방 1,욕실 1 시설완비
- 가액 : 2천만원

011-9353-111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성북 길음동 전철역 바로 앞 2층
- 평수 : 37평(실평수)
- 점안식 안했음.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산신탱화
- 방2개,공양간,욕실,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별도 2500만원

010-2665-2393

사찰안내

- 위치 : 송파 하남방향 20분거리 야산 및 대도로변 유원지 입구
- 대지 133평, 건평 70평
- 2층 대웅전, 1층 요사채
- 동불, 산신각, 무허가 건물(약40평)
- 마당 1000평이상 사용하고 있음
- 가액 : 8억 9천만원

016-286-5108

포교원 안내

- 부산 북구 최고의 위치 지하철 바로 앞, 대로변
- 평수 : 70평 6층건물중 6층 옥상이용 주차편리
- 보증금 : 6000만원(조정가능) 월세(조정가능)
- 불교대학 운영중

011-704-142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광안 4동 대로변 위치
- 4층 건물 7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시설비 절충

010-8606-7918
051)767-0313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방 2개,주방
- 전세 1,0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0-4427-2256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7-658번지 (인천 도심포교 최고요충지)
- 인연있는 스님기다립니다
- 법당 20평,방大1,방小2개, 부엌, 화장실2,심야보일러실1개
- 시유지 600평사용 가능
- 가액:1억 5천만원

032)428-0523
011-891-293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평수 : 대형 재래시장 주변 2층 50평
- 법당, 방3, 주방, 각종탱화
- 보증금 25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약간(절충)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1-9342-9794

암자안내

- 위치 : 구미시 근접 칠곡군 약목면
- 임법당, 옆산, 연꽃연못, 텃밭, 마당잔디, 총 32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7-813-912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2층 45평
- 시설비 일체 350만원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054)436-115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율하역 5분거리
- 평수 : 3층 건물중 2층 60평
- 법당1, 방3, 주방, 욕실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509-0670

토굴안내

- 위치 : 상주시 함창읍내 아담한 토굴
- 탱자울타리
- 방 2개,주방 1,욕실 1 시설완비
- 가액 : 2천만원

011-9353-111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성북 길음동 전철역 바로 앞 2층
- 평수 : 37평(실평수)
- 점안식 안했음.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산신탱화
- 방2개,공양간,욕실,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별도 2500만원

010-2665-2393

사찰안내

- 위치 : 송파 하남방향 20분거리 야산 및 대도로변 유원지 입구
- 대지 133평, 건평 70평
- 2층 대웅전, 1층 요사채
- 동불, 산신각, 무허가 건물(약40평)
- 마당 1000평이상 사용하고 있음
- 가액 : 8억 9천만원

016-286-5108

포교원 안내

- 부산 북구 최고의 위치 지하철 바로 앞, 대로변
- 평수 : 70평 6층건물중 6층 옥상이용 주차편리
- 보증금 : 6000만원(조정가능) 월세(조정가능)
- 불교대학 운영중

011-704-142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광안 4동 대로변 위치
- 4층 건물 7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시설비 절충

010-8606-7918
051)767-0313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방 2개,주방
- 전세 1,0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0-4427-2256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7-658번지 (인천 도심포교 최고요충지)
- 인연있는 스님기다립니다
- 법당 20평,방大1,방小2개, 부엌, 화장실2,심야보일러실1개
- 시유지 600평사용 가능
- 가액:1억 5천만원

032)428-0523
011-891-2933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부천시
- 평수 : 110평
- 법당 : 약 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 50평, 방3개, 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완비
- 가액: 3억 1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 법당 40평
- 요사(2층건물)
- 공양간 별도로 있음
- 가액 : 3억 6천만원

010-8853-384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광안리 대로변 최고요지
- 시설완벽(몸만 들어오시면 됨)
- 평수 : 30평
-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7548-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부근
- 평수 약 55평 반지하 광안해수욕장 5분거리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7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 몸만 오시면 됨

011-9526-902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 2동 (초량시장 내)
- 3층 건물 중 3층(50평) 법당, 삼존불 거실, 방 2개(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사찰안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찰안내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대원정사 극락원
- 총대지 378평, 법당목조단청32평, 산신당 용왕당,종각, 칠층석탑,석조약사여래입불상
- 요사채 30평,반지하 100평
- 성산일출봉이 보이며 관광일 주도로변에 위치
- 급 양도가 : 3억 3천

064)702-9982
011-858-8892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삼존불,
- 대지 600평,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가능)

010-9798-1091
영주불사

천하 명당 팔공산 대도량터 안내

- 부지 2,730평(부족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최대 6,000평까지 가능) 사찰부지 허가필
- 전기, 지하수(지하 암반 100미터) 개발 완료
- 신축 사찰 공사중(대웅전 33평, 기타 용도 80평.현 80% 공정)
- 도심에서 2~30분 거리. 민가와 약 1킬로 떨어짐.
- 수행처로 명상 수련원, 선방, 불교 테마공원 등등 불교 특화 사업 가능한 곳.
- 가격: 답사후 인수할 인연자에게 최대 조정해 드림

연락처: 주인직) 010-4512-0813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웃음보살 불등거사 〈33〉

구성 : 김흥인



돈주머니를 얻은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길을 가다 우연히 돈 뭉치를 주웠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그것을 세어 보았다. 그러나 미처 다 세기 전에 갑자기 그 주인이 나타나 그것을 모두 도로 빼앗아 갔다. 그는 빨리 가 버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매우 괴로워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난 사람도 그와 같다. 비록 세 보배[三寶]의 복 밭을 만났더라도 부지런히 선한 법을 닦아 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목숨을 마치고는 세 갈래 나쁜 길[삼악도]에 떨어진다.

옛 판화의 세계

달마 스님이 강을 건너가다 달마도강(達磨渡江)



고려말 | 종이에 수묵 | 272×180㎝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양무제와의 갈등으로 달마 대사가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향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달마 절로도강도(折蘆渡江圖)이다. 보리달마(菩提達磨)는 인도의 28대 조사이자, 중국 선종(中國禪宗)의 1대 조사이다. 남인도 또는 파사국(波斯國)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반야다라 존자의 법을 받아 중국으로 건너가 520년 전후에 북위(北魏)의 도읍 뤄양(洛陽)에 갔다가 그 후 숭산 소림사(小林寺)에서 좌선수행(坐禪修行)에 정진하고 그 선법(禪法)을 혜가(慧可) 등에게 전수했다. 선종의 1대조로서의 달마상(達磨像)은 역사적 사실과는 별도로 확립되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양 무제(梁武帝)와의 문답, 혜가가 눈 속에서 팔을 자르고 법을 전수받은 이야기, 총령고개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달마를 만났다는 이야기 등이며, 본문에서도 양 무제와의 문답과 총령고개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달마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양나라 황제 무제가 물었다. '나는 일찍이 절을 짓고 경전을 베껴 쓰고, 널리 스님들을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어떤 공덕이 있는가?' '진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한 공덕인가?' '청정한 지혜는 오묘하고 원만해 본체가 본래 비어있어 고요하니, 이러한 공덕은 세상의 법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양무제와의 문답 이 후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의 소림사에서 9년을 좌선하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자 웅이산에 시신을 묻었다. 그 후 북위의 송운이란 사람이 사신으로 서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달마를 총령에서 만났는데, 달마 스님은 손에 한쪽 신발만을 들고 있었으며, 황제가 이미 죽은 것을 알려주고는 서쪽으로 떠났다. 송운이 조정으로 돌아와 보니 황제는 이미 승하한 뒤였으며, 뒤를 이은 효장 황제가 명해 달마 스님의 묘를 파헤쳤더니 빈 관과 한 쪽 신발만이 남아 있었다."

관념에 빠져있던 불교를 일대 혁신하는 선불교가 정착할 때의 갈등을 양 무제와 달마 대사의 문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달마 대사가 불교를 혁신해 나가는 장면이 절로도강과 면벽 9년으로 우리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길 1

나무들이 바람의 푸른 지장경을 읽어 내린다
길이 나지 않는 묘지 쪽으로
소비나물 두어 송이가 고개를 젖히고 있다
봄의 떡밥에 물린 하늘은 피안을 향하여 햇살을 흔들어대고
먼바다 섬을 끼고 오는 상여소리
풀깃 아래로 징검을 놓는다 내 방향을 좇아
꼬리를 보이지 않는 시간이 슬픈 음향을 풀고 있다.

–박선옥/시집<도경역>에서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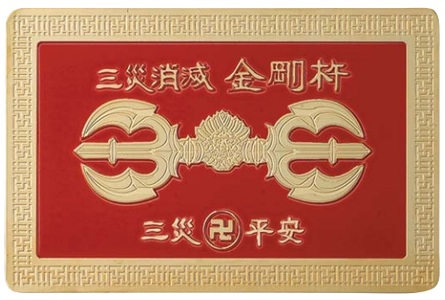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 적 색 글 씨 에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해 당 되 는 분 은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악 삼 재 입 니 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❹ 노모의 만두이야기2

'촌떡'과 '쓰봉쟁이 고모'의 추억

강원도출신인 노모의 음식은 매콤한 것이 특징이다. 노모의 특기 중 하나인 일명 '도라지 김밥'만해도 매운 맛을 살리기 위해 도라지를 고춧가루에 무쳐 김밥의 재료로 사용한다. 만두속도 이와 다르지 않아 일단 칼칼하고 간간해야한다.

"만두속은 기본이 여섯 가지여. 일단 김치에 숙주나물, 무나물, 두부, 부추가 들어가는데, 김치는 물에 빨아 쫑쫑 썰고, 숙주랑 당면도 삶아서 잘게 썰고, 무도 채나물하듯 삶아 넣고 두부도 으깨 넣고 물기 없이 꼭 짜야해. 그래서 간은 소금으로 맞추고, 참기름에 들기름에 돼지고기 들어가지, 또 고춧가루, 깨소금, 후추가루, 파 마늘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홀홀 털면서 고루 섞는 거야."



만두 빚는 노모와 손녀.

직접 반죽한 만두피에 김치와 무채를 매콤하게 양념한 속으로 옴팡지게 빚은 노모의 만두는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기본이 두 대접이다. 특히 위장기간이 부실한 언니는 밀가루 음식을 기피하면서도 노모의 만둣국 앞에서는 환장해 나중에는 옆에서 그만 먹으라고 말릴 정도다. 그러니 설을 맞아 노모가 치르는 가장 큰 연례행사는 만두 빚기다.

"만두를 빚을 때는 손에 힘을 줘서 꼭꼭 다물려야 안 터지는 거야. 빚은 다음에는 만두 밑구멍에 밀가루 칠을 듬뿍 하라고. 그래야 바닥에 들러붙지 않지."

모처럼 만두를 빚어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막내딸과 손녀딸의 솜씨가 못미더우면서도 흐뭇해 공연한 잔소리가 이어진다.

"이번엔 만두소 좀 남겨뒀다가 촌떡도 만들어야겠어. 촌떡이 만두랑 속은 똑같은데 두부는 덜 넣고 무채를 많이 넣거든. 고기를 넣으면 속이 익기도 전에 거죽이 타버리니까 고기는 넣으면 안 돼."

'촌떡'은 강원도 춘천 출신들만 아는 춘천의 명물이다. 밀반죽으로 만든 지단에 매콤한 무채로 속을 넣고 감싸 기름에 익힌 촌떡은 그 모양새가 총처럼 길다하여 총떡이라는 사람도 있고, 촌에서 해먹던 떡이라 하여 촌떡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 어원의 정체는 정확치 않으나 메밀의 구수함과 매콤한 속이 어우러진 맛이 김치만두와 비슷하면서도 색다르다.

"옛날에는 명일 때면 광주리로 하나씩 해서 먹고 그랬어. 외할머니도 참 잘했는데. 그전에 쓰봉쟁이 고모가 집에 오면 메밀을 갈아 걸러서 촌떡을 해드렸거든. 그랬더니 그 맛을 알아갖고 우리 올케가 음식을 참 잘한다면서 친구란 친구는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옛날엔 들기름도 직접 짜서 썼는데, 금방 짠 들기름으로 촌떡을 붙이면 맛있다고 더 난리들이 나는 거야."

성격이 남자 같고 바지만 즐겨 입어 일명 '쓰봉쟁이'로 통했던 고모는 여장부였다. 어린 시절,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고 한글과 민화투를 가르쳐주기도 했던 짓궂고 재미있던 고모는 한때 나의 우상이기도 했다.

"고모는 기가 웬만한 남자도 이겨요. 옛날에 동네 순경들도 잘못한다 싶으면 멱살을 들어 넥타이를 잡아 댕겨갖고 흔들어 냅다 집어던졌지. 네 아버지는 뭘 잘못하면 누이가 무서워 장롱 문을 열고 들어가 숨기도 했는걸(웃음)."

젊은 시절, 아이들을 들쳐 엎고 온갖 행상을 하는 살림살이에도 형편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대주기도 했던 인정 많고 의협심 강했던 고모는 그렇게 한 시절을 풍미하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자손들이 고모 장사를 잘 지내서 장사에 온 사람들한테 사기그릇을 한 세트씩 보냈더라고."

"그렇잖아도 고모가 종종 보고 싶었는데, 엄마는 괜히 고모얘기를 해갖고…"

생전 고모가 좋아한 촌떡과 함께 고모를 추억하다보니 어느새 올망졸망한 만두의 행렬이 두 쟁반 가득이다. 그날 저녁, 만두는 전날 노모가 하루 종일 달인 사골국물에 몸을 폭 담갔다. 고모를 잘 떠나보낸 기념으로 받은 하얀 사기그릇에 3대가 빚어 끓인 만둣국이 푸지게 담기니, 쓰봉쟁이 고모는 실은 떠남도 없이 그렇게 함께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❷❶ 건강의 근원은 소화와 배설2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스스로 경험해 가장 적절한 방법

 # 장의 휴식과 비워둠의 이득

아침 시간대는 흡수의 시간대가 아니라 배출과 배설의 시간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이 낳은 세계 제일의 자연건강학자인 니시가쯔조(西勝造) 박사는 어릴 때 허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7만여 권의 건강책을 독파하고 그만의 건강법을 창안하게 됐다. 그의 건강법 요체는 흡수와 배출의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아침을 거르고 생수를 많이 마셔 몸속에 독소를 빼내고 점심, 저녁만의 두끼식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는 무려 86가지나 된다고 했다. 니시가쯔조 박사는 수많은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1일의 오줌 속에 나오는 독소량을 검사한 결과, 아침 점심 저녁 1일 3식을 하는 사람의 오줌에는 75%의 독소만 빠지고 25%가 체내에 잔류하며,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 2식을 하는 사람의 오줌에는 100%의 독소가 빠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7~8시에 저녁을 먹고 다음날 점심을 먹게 되면 장은 충분히 휴식할 수 있고, 스스로도 여유 있게 비워둠의 묘미를 맛보아 활동하기에 훨씬 편해진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나만의 두끼 식사법

그렇다고 완전 생으로 굶으라는 소리가 아니다. 아침은 배설의 시간대라 했다. 배출과 배설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섭취하면 된다. 생수와 신선한 과일과 야채, 녹즙, 직접 갈아 만든 쥬스 등을 먹어준다. 이는 허기진 것도 채워줄 수 있고 과일의 당분은 우리가 아침과 낮에 활동하는데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

또 과일과 야채의 풍부한 섬유질은 자연스러운 배설대의 시간을 원활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식사법을 실천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며 체내 노폐물이 배설돼 두뇌나 혈액이 맑아진다. 또한 아침의 몽롱함이나 처짐이 사라지며 비만 상태가 줄어들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임상적으로는 만성피로로 무얼 해도 늘 피곤하고, 어떤 약을 먹어도 기운이 안난다고 늘상 고통스러워하던 환자들과, 아토피나 알러지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주었을 때 효과적이었다.

 #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식사법

물론 '이 방법이 최고이고, 무조건 다 맞다'는게 아니다. 항간에는 '두끼주의니, 세끼주의니' 정해놓고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두끼주의 식사법은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생수만 마셔준다. 그럼 두끼주의자들은 필자의 식사법에 대해 왜 과일이나 야채를 먹느냐고 반발할 수도 있고, 세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먹어야 두뇌에도 영양을 공급하고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아침을 거르는 행위는 영양학적으로 이치에 안 맞는다며 반발할 수 있다.

세끼주의냐 두끼주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조건과 체질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도 있지만,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생활패턴과 건강조건 등을 가지고 평생을 산 적은 없다.

전체적인 기본 흐름을 정해놓고 적당히 가감해 거기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라이프 스타일과 원칙을 찾으면 된다. '본인에게 이 방법이 잘 맞으니 당신에게도 이것이 최고다'가 아니다란 소리다. 자신이 직접 스스로 경험하고 실천해보고 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이야기 ⑯



가장 우수한 향은 열악한 환경에서 나와

일단 이러한 생존 환경이 극히 열악한 곳에 자리잡은 침향나무는 묘목 때부터 생장에 필요한 기본 영양소를 공급 받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침향(左)과 가남향(右)의 조직 비교.

열악한 곳에 자리함에도 불구하고 침향의 묘목은 좋은 영양분은 고사하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독수(毒水)와 독무(毒霧)의 해독부터 하다 보니 열악한 환경과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로 태반이 고사(枯死)하게 된다. 그중에 요행히 살아남는 나무는 우리의 산삼과 마찬가지로 성장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자라난 나무에서 생산된 향을 베트남에서는 가남향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가남향이 독샘이 있는 곳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다. 가남은 생존환경이 열악한 곳 즉, 바위틈이나 돌밭 또는 덩굴이 나무 전체를 휘감아 소위 숨쉬기조차 힘든 가혹한 조건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삼은 몸에 상처를 받거나 생장환경이 악화되면 생장조건이 갖추어 질 때까지 휴면을 한다고 한다. 성장속도가 느린 가남 또한 산삼과 마찬가지로 나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 심재(心材)에서 수지를 발생시켜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온갖 힘을 쓰게 되므로 정작 생장에는 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가남은 거의 100년을 자라도 30센티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자란 가남향은 나무의 분자구조가 침향보다는 조밀하게 되고 수지의 형성 또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기에 침향의 뿌리부분에서 가남이 나온다는 이론은 조금 성급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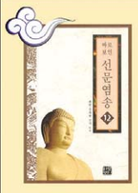
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남향을 정의하면서 '묽고 점착성이 있으며 씹으면 점성이 느껴진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재로 사용하는 침향의 경우에도 수지부분이 밀집돼 씹으면 끈적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가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집된 침향의 수지는 일정한 온도에 이르면 끈적이는 젤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젤 상태의 침향 수지가 많이 집적(集積)돼 있는 상태를 가남이라고 정의한 데서 오는 오해 때문에 침향을 가남으로 오판할 수도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수지가 밀집된 형태로(점착성이 있는) 나타나는 경우는 침향나무의 뿌리부분뿐만 아니라 껍질에서도 수지의 집적현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남향이 침향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이론은 무리가 있다. (02)3663-6777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반야기도등잔

특허 10-2008-0128283



비바람이 불어도
세상을 밝힙니다.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으름 청소걱정 NO!!

소자본 고소득 창업희망자
대리점·영업사원모집

금강정사 · 금산요
054)473-5805 / 010-3805-3527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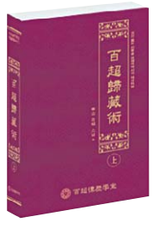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컹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길을 묻는 이에게

제717호 현대불교
2009년 2월 4일(음력 1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봄이 오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날!

무엇보다도 여러분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앉아서 서로 법담을 나누게 해 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탓으로 여러분을 춥게 해 드려서 진정 마음이 아픕니다. 올라오면서 봐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안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춥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떠돌기 시작했던 아홉 살 때 이후, '그때는 셔츠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홑것만 입고 돌아다닐 수 있었던가. 그래도 왜 춥다는 생각이 없었던가. 미쳤을까. 미쳐서 그런 거를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추운 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춥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죄송합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공부를 하는 데 그런 고난도 없이 어떻게 공부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죠. 입춘이라고 한 그 뜻은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말이 됩니다. 뜻이 되고요. 형체적인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자는 거죠. 또 우수에는 입을 뗀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 말을 하고, 말을 하면 움죽거리는 게 되는 것이 우수, 경칩이죠.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봄이 오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날이고, 입이 트이는 날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경칩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름은 있되 이름 없는 이름이기에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도 그냥 공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알고 본다면 이름도 참 천차만별로 많지만, 그 이름대로 자기의 차원과 모습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줄과 인간의 근본의 줄이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그 도리가 항상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 법계에서 다 알게끔 돼 있고 거기서 차원이 정해지죠. 근본에서 차원이 정해지고, 근본에서 알고, 근본에서 아는 것을 우주 법계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대로 입력이 돼서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온단 얘기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서 미래를 돌아서 현재를 돌아서 오면…, 우리는 이 현재 땅덩어리에 있지만 근본 마음의 영혼이 그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돌아오고 돌아가고 돌아오고 돌아가고…. 짐승같이 살면 짐승의 모습이 될 것이고, 사람같이 산다면 사람의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올 것이고, 짐승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다 놓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에는, 그냥 우주간 법계에서 인도를 해 가지고 모든 게 그저 자동적으로 인도가 돼서, 차원이 높게 모습을 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고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또 형성되죠.

그러니까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누가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지고 팔자 운명을 겪고, 또 내가 만들어 가지고 팔자 운명이 없이 자유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공부를 하셔야 이 도리를 완전히 터득을 합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먹어 본 적도 없고, 먹고 싶어 해 보지도 못한 것은 무슨 일이 왕창 생겨도, 몰라서 해결을 못하고 맙니다.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융통성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누가 책에서 가르쳐 주고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아, 요런 건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요건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마음의 물리가 터지면 그렇게 다 용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이렇게…. 용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여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되는 거든지 안 되는 거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허허. 질문하는 날이 따로 있고 질문 안 하는 날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있는 날이니…. 우리가 좋은 것만 어떻게 질문하리까. 조그맣고 크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요 앞을 내다보는 거나, 여기에서 우주를 보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도리를 알아야,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건만, 공해서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여한 걸 모르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배우려면 모든 거를 이 마음으로 들이고 내야 합니다. 잎새 하나까지도, 그 나뭇가지의 털 하나 난 것까지도 뿌리에 붙어 있는 것이지 딴 데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마음을 내고 들이고, 가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나가서 토론하고,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전체 도리가 뿌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리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보니까 이거는 안됐다 잘됐다, 남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틀리다 옳다, 또는 말을 하는 게 아주 옳은 일이다,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생각 마세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잘된 거든 잘 안된 거든, 밉든 곱든, 길든 짧든, 못났든 잘났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모든 것은 무조건 거기에다 놓고 그저 무조건 입력을 하세요. '너만이 헌 물이 새 물이 되게 할 수 있어!' 하고요. 이거는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계이기 때문에 무한량 바꿀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림 · 최주현

어느 집에 사람이 살러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싸게, 반값에 사 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집을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산다면 한 반절밖에 주지 않을 텐데요." 하기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저 있는 것들은 모조리, 천 개도 좋고 만 개도 좋고, 허허허…, 십만 개도 좋으니까 한도량에 있는 거, 몽땅 그냥 거기다가 한바다에 집어넣듯 집어넣어 봐라. 헤아릴 수 없는 물방울이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바다지 물방울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지 않는다. 다 집어넣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를 가서 사는데 너무나 좋아하더랍니다. 금방 한 사람의 사람이 돼서, 또 사람은 도로 사람이 돼서, 수레바퀴에 돌려져 가지고 재생이 돼서 나갔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의 마음속을 돌아서 한번 그렇게 본받아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이 다 녹아지고 얼마나 좋게, 두려움이 없고 인간의 나쁜 마음의 기운이 없이, 그저 자비하고 인정 많고 권위 있게 세상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나가게 됐으니, 꿈에서 고맙다고 그냥 백배사례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이제 참, 의인을 만나서 좋은 길을 걷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잘 사시라고 그러고선 이만한 구슬 하나를 주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람이 죽기는커녕 잘되니까, 판 사람이 배가 아플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값을 더 준대도 안 팔고 오히려 그 집이 낡았으니까 헐고선 다시 집을 짓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물방울이 수백 개, 수만 개라도 한 그릇에 넣으면 한 그릇의 물이지 딴 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일 불(一佛)입니다. 일 불!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법당에 부처님을 천 불을 해 놓거나 만 불을 해 놓거나, 이 부처 저 부처 많이 해 놓으면 머리가 산란해서 공부를 못 하죠.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신중이니 독성이니 칠성이니 지장이니 관세음이니 할 것 없이, 만 불이니 천 불이니 할 것도 없고 마구니들도 아주 둘 아니게 다 그냥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걱정도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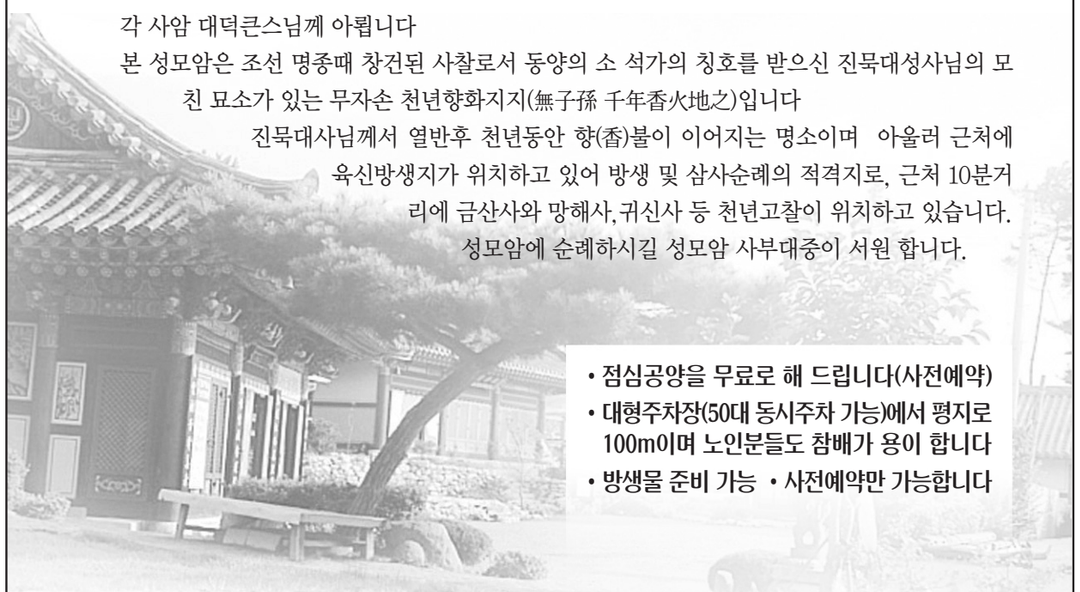
산 사람은 모습이 있고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는 바람에 모습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몽둥이로 쳐도 보이질 않으니 누가 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를 치는 사이 없이 치고 맞는 사이 없이 맞았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깨치게 해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고, 열쇠를 받는 것도 그런 거를 다 알아서 능통하고 모두 마구니도 둘 아니게 볼 줄 알고, 자기 아님이 없이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게 돼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성미에 맞지 않으면 톡 때려서 못 쓰게 만들고, 또 자기한테 맞지 않고 미우면 그냥 콕 때려서 파산을 시키고 이런다면 어떻게 그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를 막론하고 예쁘든지 밉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없든지 둘로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와 둘 아니게 보고 자기 아픔과 둘 아니게 보고, 자기 부모 아님이 없고, 자기 자식 아님이 없고, 자기 형제 아님이 없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한바다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항상 문을 열고, 우리가 인생 한 철 사는 거를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다니다가 그냥 허기가 져서 땅을 엉금엉금 기어가서 흐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그 한 모금을 마신 뒤에 두 모금째는 딱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한 모금은 마셨는데 왜 두 모금째는 마시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냥 비호같이 부처님의 채찍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

☞18면으로 계속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출강 및 통신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8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9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buddhanews.com

오늘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어야

☞17면에서 계속

면 '한 모금도 아홉 모금이 되고, 한 모금이 천 년의 천 모금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도 천 년이 일 초가 될 수 있고, 천 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천 년이 사흘이 될 수도 있고, 삼 개월이 될 수도 있다. 이러니 그대로, 없다 있다가 모두 없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한 것이므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그 물 먹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엎드려서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물 먹기가 아주 수월해졌어요. 그러나 스스로 의정이 나야지 억지로 의정을 내려고 해도 아니 되고, 억지로 아니 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이 생활 자체가 그대로 공법을 배우는, 평등공법(平等空法)을 배우는 바로 우리 도량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이 공부를 못 해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이런 노래를 여러분 잘 부르시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스님이 그런 가사를 써서 노래를 하게 했나?' 하고요.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의 법이지 우리들의 법을 빼놓고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효예요, 그냥.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거지, 생각을 해 보세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지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이름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악이 선이라는 이름을 빛나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악도 같이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죠.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되는 것도 질문하시고 안되는 것도 질문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걸 전깃줄이라고 합시다. 오신 여러분이 줄이라면, 여기 본래 있는 줄하고 맞붙어서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가 해 준 것도 없고 여러분이 한 것도 없이 불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름을 짓되 내가 한 것도 없고 네가 한 것도 없느니라. 그 반면에 네 마음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다.'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생각을 잘해서 그 나쁜 이미지를 한번 굴려서 바꾼다면 헌 물이 새 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사시니까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데 '내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共生)입니다. 공생! 여러분이 공생 아닙니까? 공(空)한 공생의 개체! 그리고 공심(共心)의 개체! 개체는 하나인데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체(共體) · 공용(共用) · 공식(共食)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양(供養)이라고 하고 공덕이라고 하죠. 공양은 한마음이신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으신다 이런 겁니다. 한마음으로 둘이 아니게 반야줄을 쥔다면 그게 바로 공덕이 되느니라. 안에도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요, 밖에도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니 자리마저도 한자리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해 놓으신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지구 안에서 하나가 빠져도 아니 되리만큼 전부 서로 도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하는 사람이 있고, 지게꾼이 있으면 또 짐을 지워 가지고 갈 사람이 있고, 이사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사차가 생긴 거죠. 이사차가 있으니까 이사할 사람이 생기고. 이 모두가 아주 미생물에서부터 만물이 다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알기 위해 그렇게 수난을 겪지 않으면 길을 모르죠
그 수난을 겪은 게 양식이되고 재산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죠!

난 예전에 산에서 말입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가랑잎을 웅덩이에다 넣고는 그 속에 앉아서 생각을 하기를, '야! 참 희한하구나! 그 왜,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은 다 없애고, 잘생기고 잘살고 복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나 태어나서 잘 살게 하지 왜 우리같이 못난 사람, 또 보기 흉측한 벌레들이나 보기 흉측한 뱀 같은 그런 짐승들을 나오게 해서 세상천지에 이렇게 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추운 줄도 모르겠고 그냥 밤을 꼴딱 새고서 나오니까 아침에 웃음이 나요.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사람일까? 미쳤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성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알기 위해 그렇게 수난을 겪지 않으면 길을 모르죠. 그 수난을 겪은 게 양식이 되고, 재산이 되고, 공덕이 되고 그런 거죠.

이런 얘기 그전에 내가 한번 했죠. 지금 광명사(光明寺)의 마당이 그전에 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 사기 전에 밭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깨를 담뿍 심어 놨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진딧물이 합빡 앉아서 깨를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농사지은 게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벼도 시원치 않아서 일곱 식구가 굶어 죽겠다고 노인네가 그래요. 그래서 관(觀)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깻조자리의 진딧물도 전부, 주인공 너만이 없애게 할 수 있어!' 하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걸 믿고요, 만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거. 그까짓 소리 해 줬다고 그렇게 엄청난 문제들을 앉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마 나부터라도 아리송해서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순박하기가 한량없지 아, 그걸 믿고선 그렇게 했더란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요렇게 빨간 점이 있고 풍뎅이같이 생긴 요만큼씩한 거 있죠? 고런 게 그냥 함빡 앉아서 진딧물을 다 빨아 먹더랍니다. 다 빨아 먹고는 그냥 훌렁 날아가더랍니다. 그래서 깻조자리가 되살아나게 되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하구나!' 그래 가지고서 다른 것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해에 농사가 잘돼서 오막살이지만 우리가 보태 준 돈 조금하고 합쳐서 집을 사 가지고 나갔죠.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이 몸속의 의식들을 지금 말로 따진다면 입자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주인공을 믿고 관한다면 입자가 나가서 그 속에 자기로 들어가서 다 조절하고,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마음을 그렇게 내면 그렇게 따라 주고, 마음을 저렇게 내면 저렇게 따라 주고, 마음을 엉뚱하게 내면 엉뚱하게 따라 주고 이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한 법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몸 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몸을 이끌어 가고, 내 식구를 이끌어 가고, 내 조상을 이끌어 가고, 내 자식을 이끌어 가고, 세세생생에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 이끌어 가는 길은 바로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모든 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으니까, 앞서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현재 또 잘 생각을 해서 주인공에 다 맡기니까 그게 재입력이 되는 겁니다. 재입력이 된다면 바로 팔자 운명이니 뭐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삭쳐 없어지는 거죠. 새로 입력 들어간 것만이 현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세가 좀 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처음에는 그걸로다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서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게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리를 알고 있어야 급하면 쓸 때도 있겠죠.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다면 급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평소에는 못 하고 안 하고 그러다가도 급하면 하게 됩니다. 생각나게 되거든요. 정 급하면 모습 없는 나는 본래부터 나쁜 게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서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싸안아 준다면, 그 마음이 일순간에 녹아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읽어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돼서, 그렇게 하나가 되죠. 그래서 진짜 자비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 사랑 하지 진짜 사랑을 한다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보기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끼리끼리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우연이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도 살아 보시지마는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한 가족이 모이는 데도 사과는 사과대로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은은 은대로 모여서 살고, 구리는 구리대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넝마는 넝마대로 모이고요. 그래서 세계가 지역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계에 다 넣고 큰 것 작은 것 고르고, 썩은 것 성한 것 고르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전부 따로따로 끼리끼리 놓고 팔고 사고 그러죠?

그렇듯이 사람도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그 차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골라져서 지금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나라나,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 제각기 아주 철두철미하게 태어나죠.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엉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왜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이렇게 못살게 되나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그러지마는, 그게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누구한테 한가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고, 죄를 더 지을 필요도 없고, 뭐 마음을 그렇게 초조하게 가져서 내 몸을 병들게 할 것도 없고, 망했다고 그냥 돈 버리고 사람 몸뚱이 버리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버렸으면 '어, 버려졌나 보다. 네가 버려지게 했으니까 네가 또 일으켜 세우겠지.' 이렇게 태연하게 마음을 먹고 늠름하게 나간다면, 아마 주변 어디서든지 자기 주인공이 귀한 사람을 끌어들여 만나게 해서 서로가 살게끔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죽네 사네 하면서 집안의 식구들도 못살게 하고, 화가 나서 오며 가며 화풀이를 여기저기다 하니까 식구들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복도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죠. 그 틈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오늘 살다가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나는 일입니까? 그러한 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일 죽는대도 겁 안 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죽게 하지도 않아요. 청개구리거든요. 이렇게 한다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하는 이치가 바로 우리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야, 하늘이 무너진다는데 이거 다 먹어치우고 그냥 다 써 버리자.' 이러는 사람 앞엔 정말 다 써지고 하늘이 무너지지만, 허허허…, 그저 그런 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그대로 꿋꿋이 가면서, '아휴! 이따가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사람이 소꿉장난을 하다가 날이 저물면 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남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어떡하나, 주인공의 재산인데.' 그렇게 하고선 아끼고 좋은 일 잘하고 살면 그 값어치가 더 들어오면서 사람 살기가 유하고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도 불바다가 된다, 다 죽는다 이러는데, 제가 스물 몇 살부터 그러던 건데 여직껏 그래요. (대중 웃음) 하하하….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모습이 변해서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마음들이 그렇게 불바다가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근본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헐렁해지면 정말 불바다가 되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2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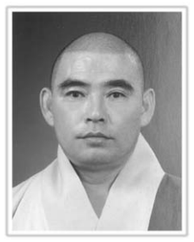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 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 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숙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모두가 지심귀명례한다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난 자리가 육신의 고향이 아닐까. 나에게는 특히 양산이 그러하며 힘들어 방황할 때마다 찾게 되는 내 영혼의 쉼터이기도 하다. 지척의 3보 종찰 중 하나인 통도사를 안고 있는 영취산 자락은 부모님이 누워계시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마르지 않는 강(江)이 침묵처럼 흐르나보다. 설 연휴를 맞아 그곳에 갈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번 깊게 생각하게 한다.

불교에서 법(法)은 대체로 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깨치기 위해 모두들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불(佛)·법(法)·승(僧)을 '삼보(三寶)'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통도사 만큼 즐겨 찾고 이런저런 추억이 많은 해인사는 진리의 가르침인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고려대장경판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보 종찰'로 일컫는다.

효봉, 청담, 고암, 서옹, 성철, 서암, 월하, 혜암 등 조계종 역대 종정스님들을 비롯한 고승들의 '법어'는 진리를 일깨워 주는 말씀인 셈이다. 그 중에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은 생전에 가야산 호랑이로도 불린 성철 스님의 법어가 아닐까싶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詩會)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조계종 6대 종정에 추대된 스님께서 1981년 1월 15일 서울 조계사 추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수행처인 해인사 백련암에서 전해 온 법이다.

그 법어의 핵심인 마지막 대목은 중국 송나라의 고승으로 도천(道川)이라는 호를 지닌 야부(冶父)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함축해 표현한 시의 한구절과 맞닿아 있다. 그 시는 야부 등 당시 중국의 고승 5명이 불교의 중심경전인 <금강경>을 해설하고 주석한 <금강경오가해>에 전해온다.

언제나 그렇듯 사찰의 경내에서 들리는 염불소리에 세월 또한 깊어지는 느낌이다. 오랜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듯 회색빛 통도사 지장전에서 들리는 염불소리 중에 유독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란 구절이 가슴을 적신다. 경내의 모든 존재들이 몸을 낮춘 채 지극한 마음으로 지심귀명례하고 있다.

사찰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49재 등 이런저런 제사가 많다. 일반 대중들이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알고 보면 제(祭)란 좋은 언행으로 나를 맑게 해 돌아가신 영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스님의 염불보다는 제주들의 맑은 마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평소에 선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하는 이유이기도하다.

종정 법전 스님은 올 해 신년법어는 "새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씻어내고 산 빛 물빛이 한결같이 지혜광명을 이루어 사바의 번뇌를 일깨우는 심지의 법등을 밝히자"이다. 어려운 경제난으로 모두들 삶이 고단해지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는 사회에 법어에 담긴 의미가 새삼 가슴에 다가온다.

오래 전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필자에게 중국의 고시를 손수 적어주시며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라는 글을 아직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그 내용도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행복과 지옥이 함께 있음에 평정심을 읽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지심귀명례' 하는 무상한 억겁 속의 절절한 감정이 기축년 새해 온몸으로 다가온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대학을 '종교전장' 만들텐가?

사립대학 안에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월 9일 입법예고 한 '대학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 안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종교시설과 스포츠쇼핑몰 등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소식은 몇 가지 서글픔을 갖게 한다. 우선 대학이라는 공간이 시장통으로 변해가는 현실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하지만 대학 캠퍼스가 종합레저타운이 돼 가는 현실은 왠지 씁쓸하다. 젊은 인재들의 미래와 국가의 학문적 바탕이 알차게 영글어 가야할 캠퍼스가 지나치게 상업화돼 가는 것은 국기(國基)가 흔들리는 것만큼이나 염려스럽다.

무엇보다 대학 안에서 종교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단순히 여러 종교가 인정되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다. 일부의 종교가 갖는 '물불 안 가리기식'의 공격적인 선교양상이 걱정이다. 이미 모든 종교들이 선교의 초점을 대학에 맞추고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대로다. 그런데 대학 안에 종교시설을 허용한다면 대학은 종교전쟁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계는 이 같은 흐름을 너무 미온적으로 보고 있다가 법이 예고된 뒤에 화들짝 놀랐다.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도 아닌데 그간 눈감고 있는 동안 입법예고 단계에 이르러 버린 것이다. 예고된 법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놓쳐 그럴 수 없다면, 범불교적인 차원에서 대학 포교의 틀을 짜는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목조문화재 보호 핵심은 '공조'

국보 제1호 숭례문을 화마에 잃은 지 1년이 됐다. 작년 2월 10일 한 노인의 어처구니없는 '대사회적 적개심'이 우리 국민을 국보 제1호도 못 지킨 한심한 백성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로부터 1년, 불교계는 물론 각계가 목조문화재 보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목조문화재가 많은 불교계의 경우도 첨단 소방시설의 설비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한 예방 및 응급대처 요령 숙지, 사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불교계의 소방관련 설비와 각종 조치 상태가 아직 대체적으로 부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화재청이 소방방재청 등 협약기관과 공동 실시한 조사 결과다.

사찰의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설비투자와 안전조치 의식교육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설비의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찰의 예산확대와 관련 기관의 지원 확대가 필수다. 목조 건축 주변의 정비와 가스 등의 인화물질에 대한 각별한 안전교육 등도 더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결국 사찰과 관련 기관의 공조가 얼마나 원활한가에 따라 화재로부터 목조문화재를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는가의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사찰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확립으로 관련 예산의 확대 방안 마련 등 많은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나눔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언제 예경공양 하세요?"

2월의 테마-예경공양

"예경공양은 존경심을 갖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며 몸과 말과 뜻으로 물건을 바치고 회향하는 것이다." (<화엄경> 2권)

조석으로 법당에 올라 '지심귀명례'하며 지극정성으로 예불을 올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예불과 함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내 자신의 본성을 비춰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경공양을 합니까?

오늘 내일 하루하루 살다가 내일, 모래 돈 많이 벌어서 아들, 딸 대학 보내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와서야 진작에 할 걸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보현행원의 실천덕목 중 첫 번째가 예경분입니다. 모든 생명의 본성이 청정한 불성생명임을 믿고 존경해 예경공양을 실천하는 불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경공양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뤄져야 할 행원이며 실천입니다.

예경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부처님을 눈앞에서 대하듯 하는 것, 이웃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된 삶이며 스스로가 부처님임을 알고 진실된 삶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님은 어떤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나니 그대들은 모두가 마땅히 성불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예배했다. 자기에게 화를 내건 꾸짖건 굴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이들을 공경했다.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중생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의 삶으로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공경합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의 삶을 살아갑시다.

옛날 어느 임금이 스님들을 궁으로 초청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스님이 대궐에 들어가려니 "허름한 행색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며 궁졸이 막았습니다. 스님은 할 수 없이 새 옷을 입고 다시 궁궐을 찾았습니다. 옷차림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궁졸들은 입구부터 공손극진하게 안내하며 대접했습니다. 잔치상을 받은 스님은 막상 차려진 음식은 먹지 않고 옷에 음식을 붓어 담아 넣기만 했습니다. 이상히 여긴 다른 사람이 물으니, 스님이 답했습니다. "내가 이 새 옷을 입지 않고 누더기를 입었으면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을텐데, 이 옷 덕분에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은 다 이 옷 덕분 아닌가? 그래서 음식을 옷에게 먹이고 있는 중일세."

우리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번지르르하면 속모양도 그럴 것이라고 쉽게 오해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느 마음에 점(點)을 찍으시렵니까? 과거·현재·미래가 불가득(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인데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어디 하시렵니까? 성불하십시오.

송묵 스님
남양주 동원정사 주지
철학박사



비영리 종교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비 공덕

양화사 건강원 — 卍 자원봉사의 집 卍 —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비만관리)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자연치유요법" "정통경락" "민간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민간요법)(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방문상담 및 봉사해 드립니다 ※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양화사(자원봉사의 집)은 불자님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합니다 ◆

양 화 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 광 합장

부석사에 부도밭이? 그것도 두 곳이나?











위 사진 오른 쪽부터 동부도밭, 서부도밭 부도 지대석의 문양, 서부도밭.
아래 사진 오른 쪽부터 원융 국사 비각과 비신의 글씨.

❹ 부석사, 외진 곳에 펼쳐진 화엄법문

동 · 서 부도밭에 9기와 4기의 부도 서 있어

절 명성 비해 부도밭 잘 알려지지 않아 '한산' … "역사정리 준비중"

대부분 상태 양호한 석종형, 주인은 '미상'

큰 절은 곳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을 보는 데는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지식도 헛수고만 부추기는 허깨비일 뿐입니다. 큰절에서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읽은 것과 들은 것으로 꿰맞추려하면 이미 보물은 10만 리 밖으로 달아나버립니다. 큰 절의 보물은 '나'를 비운만큼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석사가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들이 주는 신비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건축인 무량수전과 안양루, 조사당, 지장전, 자인당, 응진전을 비롯한 전각들의 찬연한 향기는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삶에 지친 영혼을 신라의 파란 하늘 아래로 이끌어 주는 듯합니다. 돌계단을 밟으며 천왕문과 종루를 지나 올려다보는 안양루의 날아갈듯 한 자태는 저절로 감탄사를 토하게 합니다. 창건주인 의상 대사와 선묘낭자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부석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감칠맛 나는 추억 만들기를 돕습니다. 무량수전 오른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선묘각 안을 기웃거리는 청춘남녀들은 필시 마음속으로 국경과 인력(人力)을 초월한 사랑의 힘이 자신들에게도 깃들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아스라이 펼쳐진 연봉들을 굽어보는 눈맛도 유명하고 사시사철 특색 있는 풍광도 소문이 날대로 났습니다. 부석사의 아름다움과 귀함은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혹 묻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한 번 가보시라"고 권하는 게 상책입니다.

눈 덮인 부석사를 오릅니다. 세찬 바람이 사과나무의 빈 가지를 회초리질 하는 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그러나 파란 겨울 하늘을 떠받치고 선 당간지주와 천왕문, 종루를 거쳐 무량수전에 이르니 목 줄기가 더워집니다. 휴~, 긴 숨을 토하고 멀리 바다처럼 펼쳐진 허연 산굽이들을 굽어보는 동안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 찬 도리'를 생각해 봅니다.

부석사 부도밭에 가 보셨습니까? 아마 부석사를 다녀 온 사람 가운데 십중팔구는 가보지 못했을 겁니다. 부석사에는 숨겨놓은 보물처럼 아름다운 부도밭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곳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석사에 갈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동부도밭과 서부도밭을 찾아가 볼 것입니다.

동부도밭은 유물전시관 뒤에 있는 지장전을 돌아 뒤로 굽은 외길을 따라 가다보면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멀리 산봉우리들이 키를 재는 풍경을 뒤로하고 걷는 동부도밭 가는 길은 제법 운치 있는 오솔길입니다. 한 복판만 눈을 쓸어 두어 길속에 또 하나의 길이 생겼습니다. '길속의 길'을 걷는 느낌이 무량합니다. 길속의 길,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다(法性圓融無二相)'는 길이 바로 이 길일까요?

동부도밭 가는 길에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굽이를 돌아 왼쪽으로 오르는 길을 따라 열 댓 걸음 올라서면 야트막한 비각(碑閣)을 만납니다. 부석사의 또 다른 보물이 바로 이 비각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는 두 개의 비가 있습니다. 왼쪽은 원융국사비(圓融國師碑 경북유형문화재 제127호)이고 오른쪽은 '해동화엄종조의상국사비'입니다.

원융 국사(964~1053)는 열두 살에 출가했으며 고려초 정종의 왕사를 거쳐 문종 때 국사로 추대된 당대의 명승이었습니다. 그의 비가 중요한 것은, 바로 비문의 내용에 부석사의 건립 초기 상황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빗돌에 새겨진 글자들이 마모가 심하고 귀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정교한 구양순체의 글씨들은 지금도 살아서 부석사의 창건에 읽힌 이야기들과 수많은 학승들이 경학에 몰두하던 그 시절의 구도열기를 전해 주는 듯합니다. 빗돌을 받치고 있는 귀부는 모양이 단아하고 왕(王)자를 안에 새긴 6각형의 귀갑문도 이채롭지만 머리 부분의 마멸이 안타깝습니다. 수성암질청석인 빗돌은 옆에서 보면 크기에 비해 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귀가 떨어져 나간 오른쪽 윗부분의 속살에서 긴 시간을 두고 응결되어 온 역사를 읽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빗돌을 받치고 있는 귀부나 덮고 있는 이수가 모두 제짝이 아닙니다. 원융국사비 옆에 근래에 세운 '해동화엄종조의상국사비'도 원융국사비가 발견될 때 인근에 함께 있던 비좌와 비갓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볼 때 부석사 경내에는 창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비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전란과 도굴의 화를 피하지 못해 깨지고 사라져 버린 비들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를 뿐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부도밭에서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동부도밭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불처럼 덮여 있는 눈 아래에서 고운 잔디가 봄을 기다리고 있고 아홉 기의 부도들은 저마다 머리에 눈을 덮어쓰고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속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부도 옆에 서 봅니다. 저 아래 아스라이 펼쳐진 산봉우리들이 파도처럼 밀려 왔다 멀어져 가는 듯합니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몸을 기대고 중중무진의 세계를 굽어보는 눈맛이 부석사의 명품이라면, 이 부도밭에서 이끼 낀 부도 곁에 부도처럼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맛은 명품 중의 명품일 것입니다. 부도밭에서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지바른 곳이어서 햇살이 포근하고 저 아래 사과밭 복판 마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보는 그대로가 화엄세상입니다.

부도는 대부분이 석종형이고 팔각원당형은 한 기가 있습니다. 두 기는 팔각원당형과 석종형의 중간 형태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부도들의 외형은 모두 반듯합니다. 왼쪽에 다섯 기의 부도 부재들이 따로 도열해 있는 것으로 보아 더 많은 부도들이 산 어딘가에 묻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아홉 기의 부도들은 크기가 대체로 일정한데 석종형은 모두 누구의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주인의 법호와 당호가 새겨졌을 테지만 세월이 한 점 두 점 살을 떼어 먹으며 그 자취마저 감추어 버렸습니다. 부도탑비나 기록이 따로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어쩌면 있었는데 유실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도들의 주인은 착실히 공부하며 안살림에 충실했을 뿐, 나랏일에 나서거나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시대를 논하고 세파를 이끌지는 않았나 봅니다.

팔각원당형의 부도는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단단한 생애를 살다간 스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옆에 자리한 부도의 몸돌에서는 백봉당(白峰堂)이란 호를 읽을 수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 범해각안 스님이 지은 <동사열전>은 아도 원효 의상을 비롯한 200명의 스님들에 대한 간략한 전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이 더 많았다면 부석사의 부도에 이름이 전하는 스님들의 행적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며 발길을 서부도로 옮깁니다.

서부도밭도 한 폭의 그림입니다. 천왕문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다시 위로 향해 조금 올라간 곳에 화엄선원이 있습니다. 중간기둥에는 화엄사상연구원이란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부석사에 선원이 있다? 교학의 대표적인 사찰인 화엄종찰 부석사에 선원이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이름마저 화엄선원이라니... 그러나 구산선문의 하나인 동리산문의 개산조 혜철 선사가 수학했고 조선조에서는 사명대사가 중건하기도 했으니 부석사와 선불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별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분별심이야말로 '원융'을 막는 장애입니다.

남의 집 앞마당을 지나가는 기분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선원을 지나니 길 아래로 선생님을 기다리는 초등학생처럼 나란히 서 있는 네 기의 부도가 보입니다. 서부도밭입니다. 미끄러운 토끼길을 따라 내려가니 부도밭은 참으로 안온합니다. 바람이 전혀 들지 않고 햇살이 푸짐하게 들어찹니다. 동부도밭에 비해 좀 낮은 위치지만 멀리 바라보이는 풍광도 일품입니다. 이곳은 찾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을 두 곳이나 지나야 하는, 워낙 외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도밭에는 한 기의 팔각원당형 부도와 세 기의 석종형 부도가 있습니다. 부도의 몸돌에는 연화당, 명암당 등 주인의 이름이 제법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동부도밭의 부도들에 비에 후대에 조성된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적도 현재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부도의 크기와 조각수법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들 부도의 주인들은 엇비슷한 시대를 살다 갔을 것 같습니다.

"아빠 졸라맨이다. 졸라맨을 왜 그린거야?"

졸라맨? 한 때 인터넷 공간을 풍미했던 애니매이션 케릭터 졸라맨. 부도밭 기행의 동반자, 작은 아들 눈에 졸라맨이 들어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쪽에 있는 두 기의 지대석 바닥에는 팔각의 모서리를 따라 빙 둘러가며 졸라맨과 닮은 도형을 그려두었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도형이겠지만, 정확히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애비는 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졸라맨이 아니고, 아마 '옴'이란 인도 글자를 그렇게 그려 넣은 것 같은데?"하고 말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더욱 착잡해집니다.

그러나 서부도밭을 둘러보고 화엄선원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다가 우연히 부석사 총무 스님을 만나 마음이 밝아집니다. 양 쪽 부도밭을 둘러 본 소감을 간략히 말씀 드렸더니 총무 스님이 다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줍니다.

"안 그래도 부도들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하려고 합니다. 부도에 법호와 당호가 선명한 스님들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